

2015 변화대응능력지수

2015 Change Readiness Index

변화 관리로 기회 창출하는
국가별 역량 측정

kpmg.com/changereadiness

KPMG INTERNATIONAL



핵심 사항 안내

변화대응능력지수(Change Readiness Index, CRI)란?

KPMG와 Oxford Economics는 정부, 민간 및 공공 기업, 시민 사회가 급박한 변화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지의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CRI를 고안하였다. 국가가 직면할 수 있는 변화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금융 및 사회 불안정, 자연재해 등과 같은 **충격**
- 기술, 경제, 정부 변화와 같은 **정치적 · 경제적 기회 및 위험 요인**

CRI의 활용 방안

공공 및 민간 기관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범위에서 CRI를 활용할 수 있다.

- **정부 정책의 개선:** 다른 국가의 강점과 약점을 벤치마킹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인지
- **공공 및 민간 투자결정 정보 제공:** 대상국의 강점이나 약점을 조명하여 투자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
- **최선의 실행방안(best practice) 수립:** 높은 순위에 위치한 국가 사례를 분석하고 변화 대응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토대로 최적의 실행방안 마련





목차

서문	1
Executive summary	2
CRI 결과	4
CRI 소개	8
주요 결과	10
CRI가 주는 인사이트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풍부한 천연자원이 변화대응역량을 보장하지 않는다• 높은 소득 평등의 국가가 변화에 더 잘 대응하고 있는가?• 소규모 국가는 더 높은 변화대응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결론	26
향후 과제	28
CRI의 Tool kit	29
참고 자료	30
저자 소개	47



서문

2015년은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해이다. 올 가을, UN 정상회의에서 향후 2030년까지 15년 간 국제 사회가 달성해야 할 새로운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가 선언되기 때문이다. 본 회의는 국제 사회가 미래에 달성해야 할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며, 이를 선정하는데 있어 시민사회와 정부, 기업이 매우 밀접하게 상호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SDG에는 가속화되는 글로벌 변화 속에서 주요 도전 과제와 기회 요인이 반영될 것이다. 각종 충격에 대한 국가별 취약성과 높은 삶의 질을 요구하는 인구의 증가, 부의 분배의 변화, 기후 변화, 신기술 등 장기적인 변화를 모두 포함한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사회와 국가, 지역 및 글로벌 수준에서의 회복탄력성(resilience) 구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올바르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이 변화에 대한 복합적인 역학관계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KPMG가 참여하여 새롭게 개발한 변화대응능력지수(CRI)는 이러한 논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CRI는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 및 회복탄력성에 대한 능력을 나타낸다. 처음 개발된 2012년 이후 올해 세 번째 CRI가 발표되었다. 이번의 CRI는 더욱 더 정교한 방법을 통해 산정되었으며, 세계 인구의 97%가 속한 127개 국가를 포함하였다.

오늘날, 기업과 공공 부문 모두 위험요인을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변화에 대한 준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CRI는 다양한 국가 분석가와 정책 입안자가 리스크를 이해하고 관리하며,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CRI를 통해 의사결정자들은 더욱 책임감 있고, 혁신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 변화에 더 나은 대응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이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다. CRI는 시민사회와 정부, 기업 간의 새로운 파트너십 모델을 포함하여 SDG와 관련된 적절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것이다.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위한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Jan Mattsson



Jan Mattsson 은 KPMG 지속가능개발 본부의 특별고문(Special Advisor)으로, UN 사무차장 및 World Bank 감사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다. Jan Mattsson은 그의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본 서문에 공헌하였으며, 이는 해당 기관들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Executive summary

변화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3대 역량



1

기업 역량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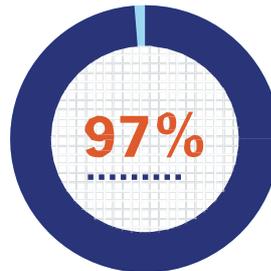
정부 역량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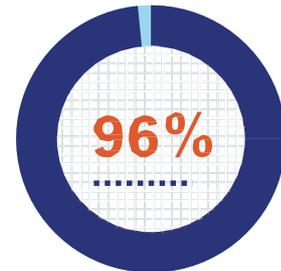
시민사회 역량

CRI 포함 범위:

세계 인구의



세계 GDP의



CRI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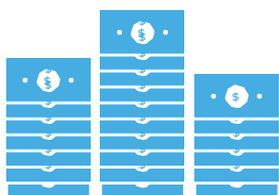


2015년 37개의 신규 국가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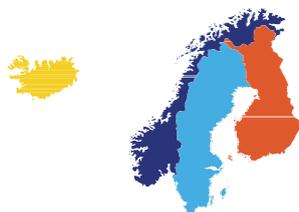
120개 이상의 2차 변수를
73개의 지표로 집약

각 국가 전문가 1,270명이
1차 설문 조사인 22개 문항에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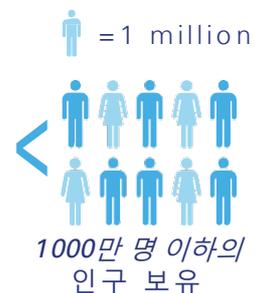
상위 10개국의 특징



고소득 국가



북유럽 국가 중심



1000만 명 이하의 인구 보유

순위 변동이 큰 국가



예상 외로 높은 성과를 보인 국가

국민 총 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을 바탕으로 예측한 GNI 대비 높은 CRI 점수를 기록한 상위국가

- 

1. 모잠비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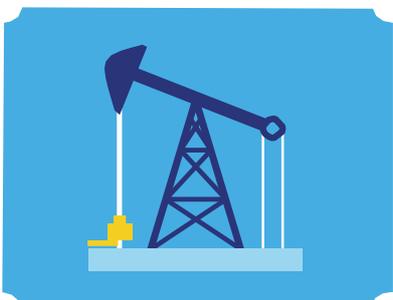
2. 르완다
- 

3. 우간다
- 

4. 캄보디아
- 

5. 탄자니아

CRI가 주는 시사점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는 높은 변화대응수준을 보장하지 못함



포괄적 성장은 변화대응수준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



높은 소득 불평균도는 낮은 변화대응수준과 연관되어 있음

CRI의 주요 독자

- 경제개발 관련 기관
- 민간 부문 (기업 등)
- 정책 입안자
- 시민사회

Source: KPMG International, 2015.

CRI 결과

전체 순위	국가	지역	기업 역량	국가 역량	시민사회 역량
1	싱가포르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1	1	11
2	스위스*	북부, 남부, 서부 유럽	3	5	2
3	홍콩*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2	6	10
4	노르웨이*	북부, 남부, 서부 유럽	17	3	1
5	아랍에미리트*	중동 및 북아프리카	4	2	19
6	뉴질랜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7	8	7
7	카타르	중동 및 북아프리카	5	4	20
8	덴마크*	북부, 남부, 서부 유럽	6	11	4
9	스웨덴	북부, 남부, 서부 유럽	13	9	3
10	핀란드*	북부, 남부, 서부 유럽	10	7	6
11	네덜란드*	북부, 남부, 서부 유럽	14	13	5
12	독일	북부, 남부, 서부 유럽	11	10	13
13	영국	북부, 남부, 서부 유럽	8	19	12
14	캐나다*	북아메리카	20	16	9
15	일본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9	18	18
16	호주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24	17	8
17	오스트리아*	북부, 남부, 서부 유럽	21	14	16
18	벨기에*	북부, 남부, 서부 유럽	19	20	14
19	칠레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	23	15	24
20	미국	북아메리카	15	27	15
21	이스라엘	중동 및 북아프리카	16	30	17
22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및 북아프리카	18	12	36
23	대만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22	22	26
24	말레이시아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12	25	34
25	한국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26	26	22
26	프랑스	북부, 남부, 서부 유럽	32	44	21
27	포르투갈	북부, 남부, 서부 유럽	28	40	25
28	체코공화국*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27	31	33
29	헝가리*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29	35	30
30	슬로바키아*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33	29	29
31	카자흐스탄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46	21	35
32	폴란드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43	23	31

* 2015년 CRI에 새롭게 추가된 국가

■ 고소득

■ 중상위 소득

■ 중하위 소득

■ 저소득

전체 순위	국가	지역	기업 역량	국가 역량	시민사회 역량
33	필리핀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30	24	39
34	태국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25	38	43
35	스페인	북부, 남부, 서부 유럽	42	49	23
36	리투아니아	북부, 남부, 서부 유럽	45	42	27
37	요르단	중동 및 북아프리카	35	32	40
38	코스타리카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	58	28	28
39	터키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31	45	50
40	우루과이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	67	39	32
41	페루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	36	48	47
42	멕시코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	54	37	42
43	인도네시아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37	55	45
44	파나마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	38	62	41
45	중국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40	46	58
46	콜롬비아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	48	52	46
47	불가리아*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39	60	53
48	세르비아*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55	53	44
49	마케도니아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52	50	52
50	캄보디아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34	51	69
51	카보베르데*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63	41	56
52	피지*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41	66	60
53	나미비아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49	43	79
54	엘살바도르*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	50	73	49
55	그리스	북부, 남부, 서부 유럽	75	71	37
56	모로코	중동 및 북아프리카	44	56	78
57	아제르바이잔*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66	33	70
58	보츠와나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59	36	77
59	브라질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	61	57	63
60	에콰도르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	64	65	59
61	남아프리카공화국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62	54	74
62	스리랑카	남아시아	53	68	73
63	러시아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56	78	55
64	튀니지	중동 및 북아프리카	72	72	54

* 2015년 CRI에 새롭게 추가된 국가

■ 고소득

■ 중상위 소득

■ 중하위 소득

■ 저소득

전체 순위	국가	지역	기업 역량	국가 역량	시민사회 역량
65	케냐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47	84	65
66	이탈리아	북부, 남부, 서부 유럽	76	87	38
67	인도	남아시아	51	69	83
68	가나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71	61	67
69	르완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82	34	89
70	도미니카 공화국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	60	80	64
71	통가*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84	74	57
72	키르기스스탄*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65	82	61
73	잠비아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78	58	81
74	우간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68	75	80
75	그루지야*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86	64	76
76	부탄*	남아시아	93	47	88
77	몽골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108	59	48
78	탄자니아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90	63	75
79	루마니아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79	86	62
80	모잠비크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77	67	97
81	세네갈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88	81	68
82	자메이카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	70	101	66
83	이집트	중동 및 북아프리카	73	89	82
84	파라과이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	92	79	86
85	알제리	중동 및 북아프리카	96	70	98
86	방글라데시	남아시아	81	88	91
87	코트디부아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74	83	103
88	아르헨티나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	101	103	51
89	과테말라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	80	92	92
90	나이지리아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69	91	104
91	온두라스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	85	98	87
92	카메룬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94	77	106
93	베냉*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87	85	101
94	파키스탄	남아시아	57	113	99
95	에티오피아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100	76	107
96	리비아*	중동 및 북아프리카	95	99	90

* 2015년 CRI에 새롭게 추가된 국가

■ 고소득

■ 중상위 소득

■ 중하위 소득

■ 저소득

전체 순위	국가	지역	기업 역량	국가 역량	시민사회 역량
97	미얀마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83	97	100
98	베트남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89	107	95
99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98	105	85
100	니카라과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	99	96	94
101	우크라이나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97	115	71
102	시에라리온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91	95	109
103	네팔	남아시아	116	109	84
104	남수단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109	100	105
105	짐바브웨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112	93	108
106	볼리비아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	117	102	96
107	말리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105	108	102
108	아이티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	103	104	115
109	앙골라*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114	90	117
110	베네수엘라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	122	116	72
111	감비아*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115	94	111
112	예멘	중동 및 북아프리카	106	106	116
113	동티모르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120	114	93
114	수단*	중동 및 북아프리카	102	118	113
115	라오스*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110	112	112
116	파푸아뉴기니*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104	120	110
117	콩고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111	110	121
118	시리아	중동 및 북아프리카	107	117	118
119	마다가스카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113	119	114
120	부르키나 파소*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119	111	119
121	말라위*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121	123	120
122	소말리아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118	122	124
123	모리타니아*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124	121	123
124	아프가니스탄	남아시아	123	124	122
125	부룬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125	125	126
126	기니*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126	126	125
127	차드*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127	127	127

* 2015년 CRI에 새롭게 추가된 국가

 고소득

 중상위 소득

 중하위 소득

 저소득

CRI 소개

Q 국가에게 '변화에 대한 준비'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변화대응능력지수(CRI)의 목적을 생각해볼 때, 변화에 대한 준비는 정부, 공공 및 민간 기업, 시민사회로 구성된 국가가 다양한 범위의 변화 요인을 예측하고 준비하며 이를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또한 여러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기회를 선제적으로 이용하고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역량도 포함한다.

Q 왜 CRI를 개발했는가?

모든 정부나 기업, 사회는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이들이 갑작스런 충격이나 장기간의 트렌드 변화에 준비하고 대응하는 방법은 시민의 복지와 기관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부나 정책입안자, NGO, 시민사회, 기관, 개발기구, 투자자, 민간 기업들이 현명하게 변화에 대응하고 변화를 활용할 수 있는 국가의 역량을 더 잘 이해한다면, 역량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를 활용해서 더 나은 투자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CRI에 대한 아이디어는 2010년 아이티 지진 직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처음 논의되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국가 상황에 대해 논의하면서, 아이티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나 다양한 유형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을 측정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러한 논의 이후, KPMG와 Oxford Economics는 변화 대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수인 CRI를 개발하였다.

Q 다른 지수들 대비 CRI가 가지는 차별점은 무엇인가?

CRI는 변화에 대한 대응 수준을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지수이다. CRI는 주로 GDP나 생산성과 같은 '결과치'보다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나 복지지원 정책 등과 같은 '투입요소'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한다. 이를 통해서 정부나 이해관계자들은 투입요소를 더 잘 조정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취약한 부문을 개선할 수 있다.

CRI는 변화를 관리할 수 있는 국가의 근본적인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국가가 각종 '불리한' 상황(여러 인접국과의 각종 지리적 분쟁, 국가 재정의 한계, 높은 자연재해 빈도 등)에 놓여 있더라도 탄탄한 경제적, 거버넌스, 사회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Q CRI를 도출한 방법론은 무엇인가?

CRI는 전세계 국가 전문가 1,270명으로부터 22개 문항에 대한 1차 설문 조사를 통해 획득한 정보와 120개 이상의 2차 변수(73개의 지표로 통합)로 산출되었다. 이 지수는 국가의 변화 대응 능력을 세 분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바로 (1) 기업 역량, (2) 정부 역량, (3) 시민사회 역량이다.



1차 데이터와 2차 데이터를 조합한 결과, 127개 국가의 변화 대응에 대한 포괄적인 모습이 나타났다. 2차 데이터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세계은행(World Bank), 레가툼 연구소(Legatum Institute),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을 통해 수집되었다.

변수에 대한 가중치나 세 가지 역량별 세부 구성 요소, 설문조사의 질문, 사용된 2차 데이터의 출처 등과 같은 세부 사항은 kpmg.com/changereadiness-methodology에서 확인 할 수 있다.



Q CRI 개발에 참여한 주체는?

KPMG는 Oxford Economics와 함께 1차 데이터와 2차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의 응답자는 해당 국가에서 최소 7년 이상 분석과 조사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었다. 이들은 경제 정책 입안이나 사회구조, 거버넌스 제도에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정부 부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아서 정책 실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전문가로 선정하였다. 또한 민간 영역과 NGO, 학계, 노동조합을 모두 포함하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였다.

Q 조사 결과의 활용 방안은?

개발기구와 정부, 기타 투자자는 CRI를 통해 국가가 당면한 사항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그에 맞춰 지원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선정해나갈 수 있다. 즉, 국가별 요구사항에 따라 알맞은 정책적 개입을 수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는 타 국가의 사례를 통해 자국의 위치를 파악하여 공공정책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민간 투자자는 특정 국가의 상대적인 매력도를 파악하고 잠재적 기회 요인이나 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투자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국가가 다른 국가의 우수 사례를 통해,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주요 요인'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회복탄력성 높은 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Q 국가 선정 기준은?

우리의 목표는 CRI의 대상 국가 수를 확장해나가는 데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이나 소득 수준 측면에서 대표성과 다양성을 띠는 국가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에 인구 규모가 큰 국가와 데이터의 유효성을 가진 국가를 우선순위로 선정했다.

주요 결과

상위 10개 국가 - 강한 북유럽 국가 성향

소규모의 개방 경제를 가진 상위 국가들 중에서 싱가포르가 1위를 차지: 스위스, 홍콩, 노르웨이, 아랍에미리트, 뉴질랜드, 카타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 상위 10개 국가는 경제적, 지리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모두 다양하기 때문에 변화 대응수준을 결정지을 단 하나의 요인을 찾기가 어렵다. 일부 국가들은 시민사회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나타냈고, 또 다른 국가는 정부나 경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결국 상위 국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인 분야가 있다. 상위 10개 국가의 전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소규모, 개방적인 사회의 아시아-태평양 국가: 싱가포르, 홍콩, 뉴질랜드 중 특히 앞 두 국가는 시민

사회 분야보다 기업과 정부 분야의 역량에서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 소규모의 개방적인 사회 특징을 보이는 북유럽 중심의 유럽 국가: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시민사회(특히 높은 평등) 역량에서 높은 점수를 차지하였다. 그 뒤로 정부 역량, 기업 역량이 따랐다. 이 국가들은 모두 상위 10개국 중 타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며 대규모 자금을 정부 관련 기관이나 사회적 복지 시스템에 효율적으로 투자한다.
- 풍부한 자원 국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는 기업 및 정부 역량에서는 모두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하지만 시민사회 역량 부문에서는 아랍에미리트는 19위, 카타르는 20위 등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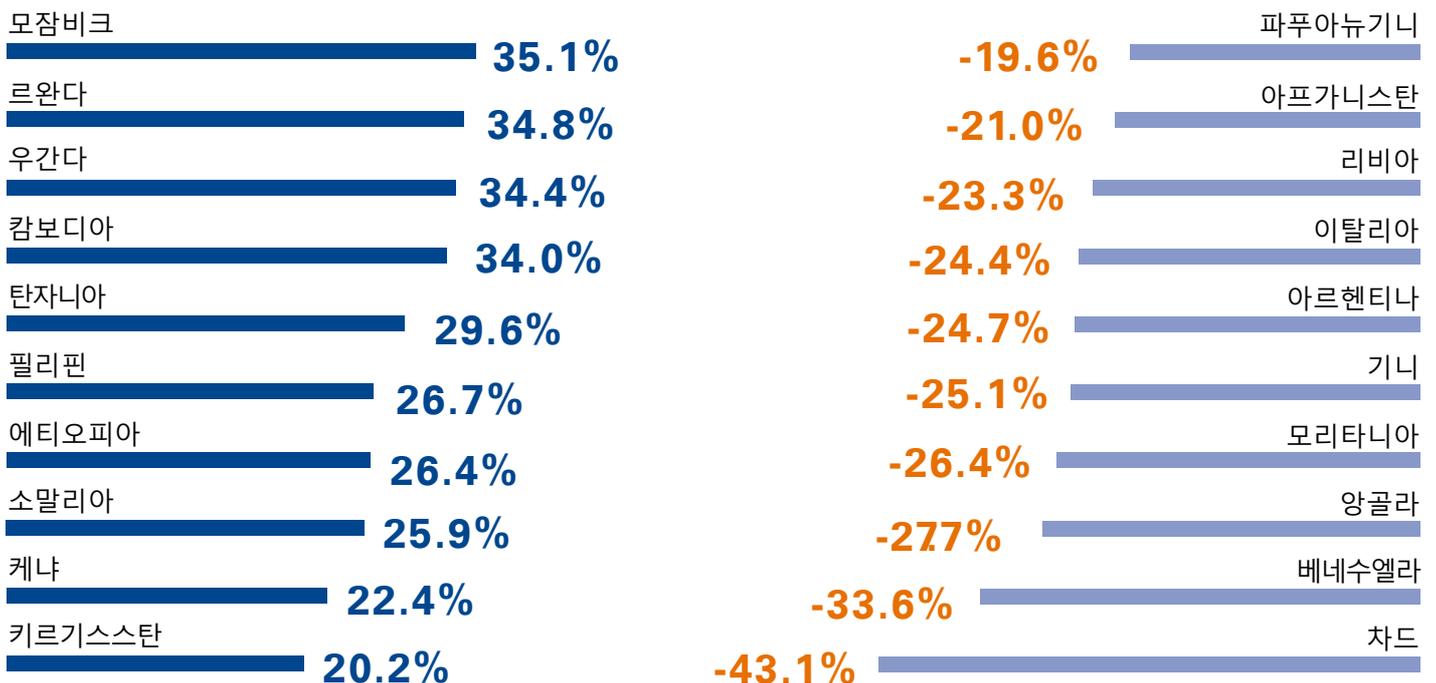
해당 국가의 대부분 기업들은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다.

부의 중요성

소득수준은 변화대응수준에 매우 중요한 결정 요인이다. 상위 22개 국가 모두 고소득 국가이다. 중상위 소득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국가는 23위를 차지한 대만이다. 중하위 소득 국가 중에는 필리핀이 23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저소득 국가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국가는 캄보디아로 50위를 기록하였다.

상위 50개 국가에는 중상위, 중하위 소득국가도 있으며, 심지어 저소득 국가인 캄보디아도 포함되기 때문에, 단순히 소득 수준이 높다고 해서 변화에 대한 대비를 더 잘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그림 1. 실제 변화대응점수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통해 예측한 변화대응점수와와의 차이 (예측 점수 대비 %)



Source: KPMG International, 2015.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가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보다 변화대응능력지수가 더 높을 수 있다. 1인당 국민소득(GNI)을 통해 예측한 순위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나타낸 국가는 모잠비크, 르완다, 우간다, 캄보디아이다. 반대로, 차드, 베네수엘라, 앙골라, 모리타니아, 기니의 변화대응능력지수는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을 바탕으로 예측한 순위보다 4분의 1 수준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그림 1).

예상외로 높은 성과를 보인 국가: 칠레, 필리핀, 인도

칠레는 19위를 기록하면서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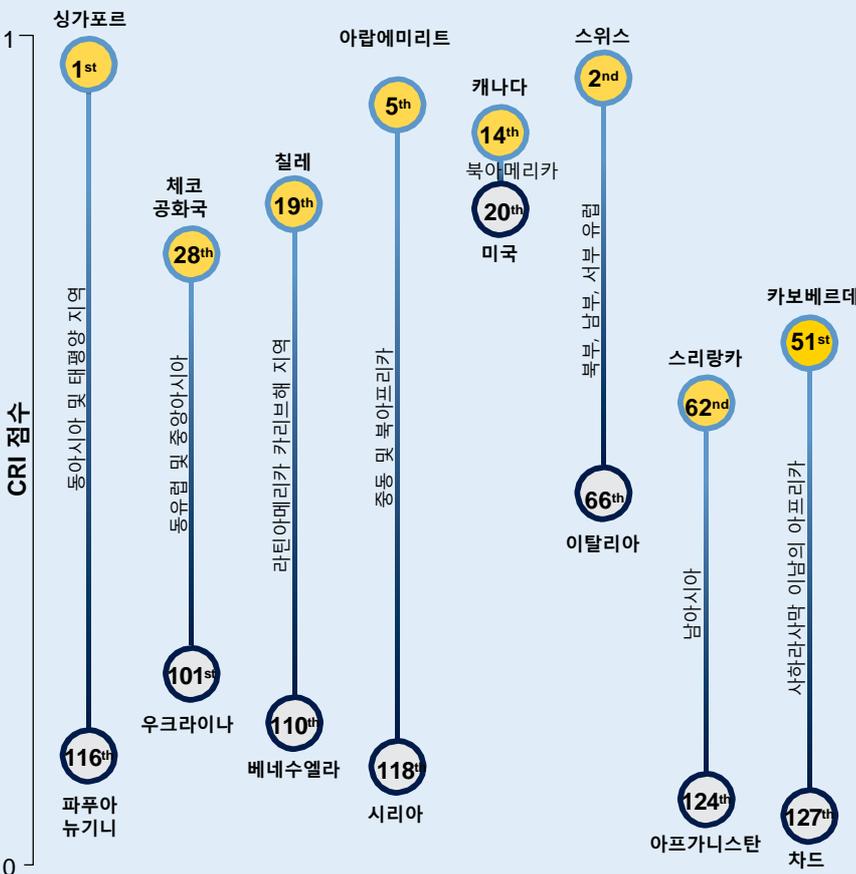
이는 칠레보다 높은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을 보이는 미국이나 프랑스 등의 경제개발국보다 높은 순위이다. 현재 칠레는 고소득 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며, 기업 역량 부문에서 23위, 정부 역량 부문에서 15위, 시민사회 역량 부문에서 24위를 차지하면서 전 분야에 걸쳐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국가 재정 및 예산 부문에 강점을 보이면서, 정부 역량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탄탄한 정부재정(특히 구리 등 원자재 수입 관리와 연계)과 효율적인 정부지출이 정부 역량 분야의 높은 성과에 영향을 미쳤다. 칠레는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 내에서 기업 역량, 정부 역량, 시민사회 역량 세 분야에서 모두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특히, 기업 역량과 정부 역량 분야에서 그 다음 순위 국가보다 13단계나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필리핀, 2013년에 이어 다시 중하위 소득국가 중 가장 높은 CRI 순위 차지. 필리핀은 33위를 기록하면서 스페인, 이탈리아와 같은 고소득 국가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효율적인 정부재정과 예산 관리 절차, 국가 전략 계획이 정부 역량 성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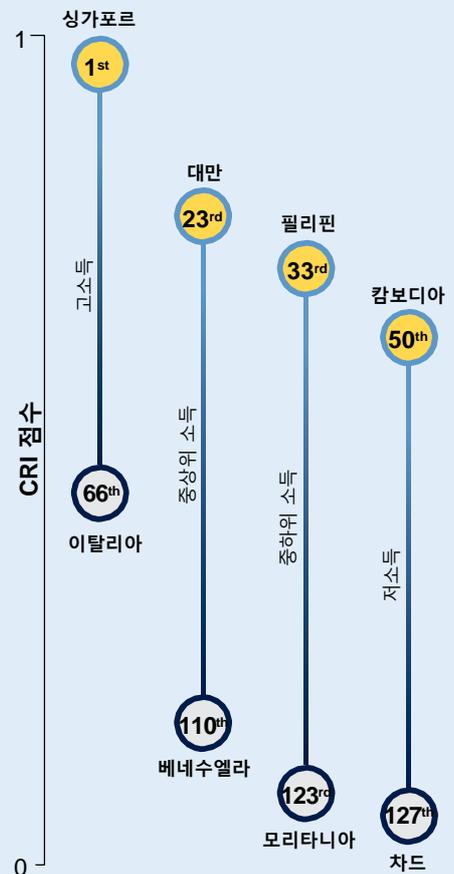
경제 체제 개선의 가시적인 효과 중 하나로, 필리핀의 국가 신용도는 2014년 12월 다시 상승하였다.¹

각 지역별 CRI 최상위 및 최하위 국가



Source: KPMG International, 2015

각 소득 그룹 별 CRI 최상위 및 최하위 국가



Source: KPMG International, 2015

¹ 무디스에서 상향조정된 필리핀의 신용 평가, philistar.com(2014.12.11)

인도, 남아시아 지역에서 2위 차지. 인도의 CRI 순위는 2013년 65위에서 2015년 48위로 대폭 상승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5월 새로운 정부가 출현한 이후, 순차적으로 내놓은 부정부패에 대한 강력한 처벌, 보조금 삭감, 인프라 및 주택에 대한 투자 정책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인도의 2015년 순위는 역동적이고 급성장하는 인도 경제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회적, 경제적 요구를 충족하는 데 장애 요소도 존재한다.

캄보디아, 저소득 국가의 대표주자. 캄보디아는 저소득 국가 중 2위 국가보다 15위나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특히 기업 역량 분야에서 34위를 차지하였다. 기업 역량의 세부 항목 중 경제적 다양성에서는 4위, 비공식 분야에서는 1위를 차지하였다. 캄보디아는 저소득 국가에서 신흥시장으로의 전환점에 위치하면서, 미래 아시아를 선도할 국가로의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캄보디아는 시민사회 역량 분야에서 69위를 차지하면서,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나타내었다.

유로존 위기, CRI 순위에도 여실히 나타남

그리스와 이탈리아, EU 국가 내에서 최하위 위치. 물론 데이터가 2015년 그리스 신정부 출현 이전에 수집되기는 했지만, 그리스는 EU 국가들 사이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이탈리아는 66위를 차지하면서 고소득 국가 내에서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 내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스리랑카, 모로코, 엘살바도르, 캄보디아와 비슷한 수준이다. 취약한 정부 재정과 과도한 규제 및 관료정치로 인해 특히 정부 역량 분야에서 87위를 기록하였다. 이탈리아는 2015년 새롭게 진보적인 정부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2014년에 비해 정부 역량 순위가 개선되지 않았다. 이는 이탈리아가 직면한 여러 장애 요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인도는 새로운 정부로 변화한 후 1차 데이터에서 상당히 많은 개선점이 나타났다.

순위 상승 폭이 큰 국가들...²

2013년 CRI 조사 이후 37개의 국가가 추가되면서 2015년 CRI에는 총 127개 국가가 참여했다. 2013년 지수에 참여한 90개의 국가들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국가는 알제리다. 알제리는 특히 기업 및 정부 역량 분야에서 큰 개선이 있었다. 알제리는 2015 세계경제포럼 글로벌 경쟁력 지수(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WEF GCI)에서도 20위로 상승하였다.

러시아도 큰 개선. 러시아는 특히 기업 역량 부문 순위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WEF GCI에 따르면, 특히 채용 및 해고에 관한 규제와 고용주-노동자 관계에서 큰 개선이 있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러시아의 제재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여 2014년과 2015년 루블의 가치는 급속하게 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의 높은 순위 상승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013년 CRI 결과, 러시아의 개발 수준에 비해 CRI는 매우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2015년 CRI 결과, 러시아는 여전히 고소득 국가들 중 2번째로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으며, 최하위 국가인 이탈리아보다 불과 두 계단 높다(표 1).

표 1: 순위 변동이 가장 큰 국가(2013-2015)

국가	지역	2015 순위 (90개 국가)	2013 순위 (90개 국가)	순위 변동 방향
알제리	중동 및 북아프리카	62	81	↑
러시아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44	62	↑
인도	남아시아	48	65	↑
미얀마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72	52	↓
소말리아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89	68	↓
시리아	중동 및 북아프리카	88	56	↓

고소득
 중상위 소득
 중하위 소득
 저소득

Source: KPMG International, 2015

² 2013년과 비교하여 순위 상승 및 하락을 나타낼 때, 2015년에 새로 추가된 37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90개 국가만이 선정되었다.

...그리고 순위 하락 폭이 큰 국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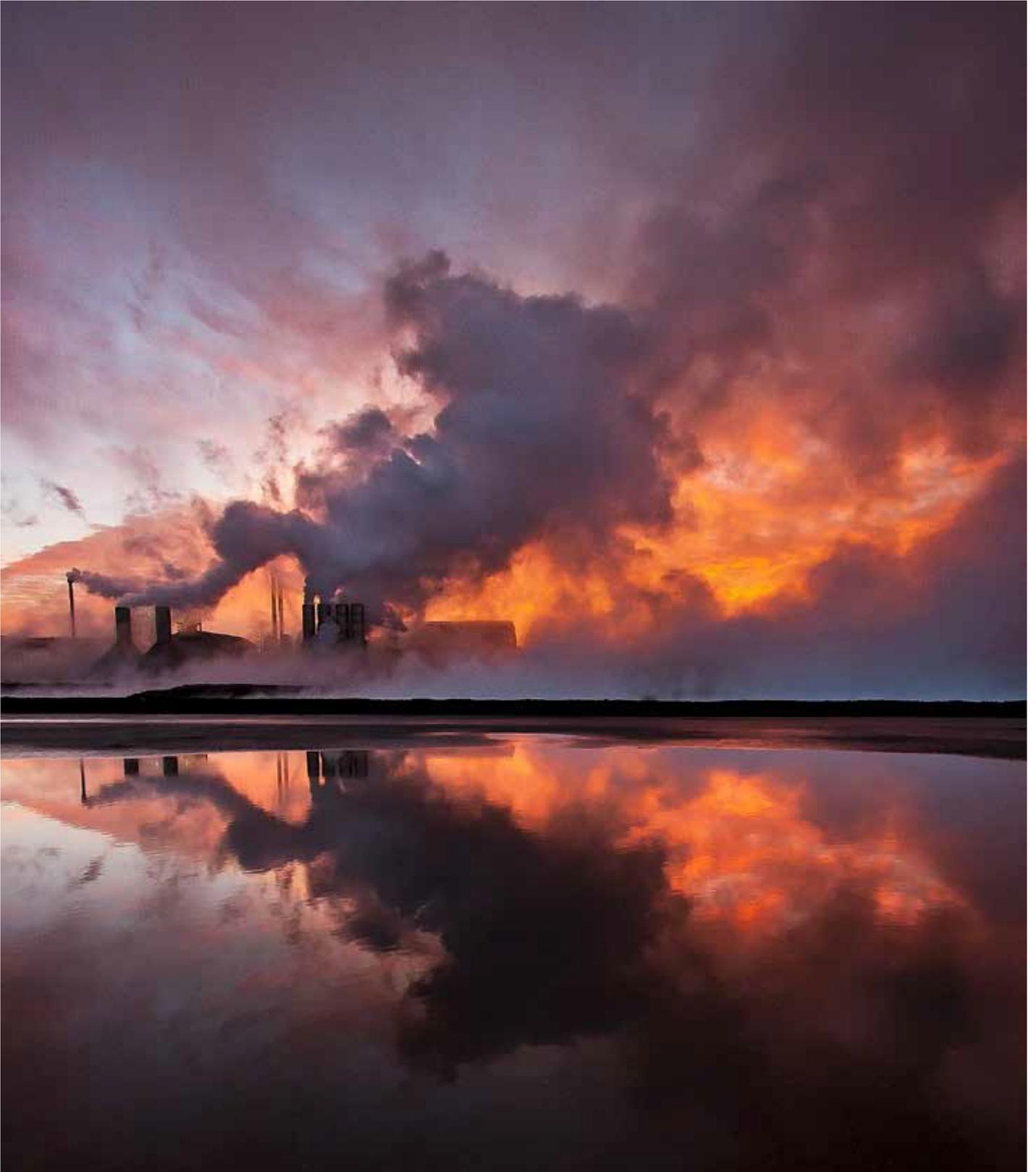
시리아, 폭력적인 내전으로 인해 큰 폭 하락. 2015년 CRI 결과, 시리아는 90개 국가 중 88위에 위치했으며, 세 분야에서 모두 낮은 순위를 나타내었다.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정부군과 반군의 무력충돌로 인하여 약 20만 명의 시리아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내전으로 인하여 사회의 모든 기능이 마비되었으며, 9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하였다.

소말리아, 90개 국가 중 89위. 소말리아는 특히 기업 역량 분야에서 큰 폭으로 순위가 하락하였다. 테러리즘과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새로운 정부가 국가의 변화대응역량을 개선하지는 못했다. 또한 미국 은행이 소말리아로의 송금에 엄격한 제재를 가하면서 소말리아 소득의 주요 원천이 차단되었고 이는 소말리아 경제 불안정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미얀마, 2013년 90개 국가 중 52위에서 2015년 90위로 하락. 미얀마는 세 분야의 역량 수준이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특히 기업 환경의 악화로 기업 역량 수준이 크게 하락하였다. 비효율적인 기업의 이사회와 반독점 정책, 지역 경쟁력 부족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얀마의 개혁 속도는 매우 느리게 진행되어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개혁은 거의 멈춰 있었다고 볼 수 있다.



CRI가 주는 인사이트



풍부한 천연자원이 변화대응역량을 보장하지 않는다 – 하지만 ‘자원의 저주’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주요 시사점

- 단일 원자재에 의존한 경제는 취약한 거버넌스, 각종 분쟁, 다각화되지 않은 산업 기반과 연관되어 있다.
- 많은 인구를 보유한 중·저소득 국가가 자원에 높은 의존도를 가지는 경우, 변화대응 능력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의 효율적인 관리는 국민과 시민사회를 윤곽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원을 활용한 거버넌스는 국민의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원이 풍부한 국가는 보유한 자원을 통해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자원이 부족한 국가보다 경제 성장이 둔해지고 더 많은 분쟁이나 불안정성을 겪는 현상을 겪게 될 수도 있다. 이를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라고 한다. 천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노르웨이처럼 많은 번영을 겪을 수도 있지만, 이와 반대인 상황을 겪는 국가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급변하는 원자재 가격에 따른 불안정성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국가는 거버넌스가 취약해지거나 공공 서비스가 부실해지는 문제에 당면할 수 있다.

- 천연자원으로 인한 막대한 외국환의 유입은 통화 가치를 급등시키고, 제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이를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이라 일컫는다).
- 정부가 천연 자원 이외 부문의 세계 수입에는 관여하지 않는 책임감 부족(해외 원조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국가에서도 유사한 모습이 나타난다).
- 특히 석유나 광물과 같은 재생불가능한 천연자원 지대(rents)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다.

물론 자원이 풍부한 모든 국가가 발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다. 탄탄한 거버넌스와 경영을 통해 국가에 많은 부와 번영을 가져다 준 사례도 많다. 다이아몬드의 주요 생산 국가인 보츠와나는 높은 1인당 GDP를 보이면서 아프리카 타 국가 대비 괄목할만한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다. 노르웨이는 풍부한 에너지 자원국이면서 높은 1인당 소득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지표에서도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 게다가 원자재 수입의 상당 부분을 저축해 다음 세대를 위한 수익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자원의 저주는 CRI에 드러난다.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1인당 소득 수준을 달성하더라도, CRI는 대체로 그 국가들이 직면하는 여러 문제들을 극명하게 나타낸다.

/// ‘네덜란드 병’은

자원에만 의존하는 국가가 환율 하락과 인플레이션으로 자원을 제외한 다른 제조업의 경쟁력을 잃고 경제가 위기에 처하는 현상이다⁴///

국가 수입의 대부분을 자원에서 창출하는 국가는 평균적으로 낮은 CRI 순위를 보인다.

높은 천연자원의 의존도는 낮은 변화대응수준으로 이어진다.

2015년 CRI 조사에서 국가 수입의 30% 이상을 자원 지대에 의존하는 국가는 총 8개 국가로 나타났다: 모리타니아,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양골라, 콩고, 아제르바이잔, 카타르, 파푸아뉴기니(16페이지, 표 2).

³ “Are natural resources a blessing or a curs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The Guardian(2012.10.25).

⁴ Back to Basics, Christine Ebrahim-zadeh, IMF Finance and Development(2003.03).

⁵ 천연자원의 총 지대는 석유 지대, 천연가스 지대, 석탄 지대, 광물 지대, 삼림 지대의 총합을 의미한다.

표 2: 자원 의존도, 소득 및 CRI 순위 간 상관관계

국가	CRI 순위	정부 역량 순위	2013년 GDP 중 천연 자원 지대 비중 %(World Bank)
카타르	7	4	34.6
사우디아라비아	22	12	46.2
아제르바이잔	57	33	36.4
리비아	96	99	41.5
앙골라	109	90	38.3
파푸아뉴기니	116	120	31.6
콩고	117	110	36.8
모리타니아	123	121	53.8

■ 고소득

■ 중상위 소득

■ 중하위 소득

■ 저소득

Source: KPMG International, 2015.



소득 수준과 변화대응수준의 관계에서 아래와 같은 세 가지 형태의 그룹이 나타난다.

- **낮은 변화 대비수준과 낮은 소득수준** (파푸아뉴기니, 콩고, 모리타니아): 이들 국가는 극심한 '자원의 저주'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낮은 소득 수준으로 CRI도 매우 낮다.
- **중상위 소득 수준이지만, 평균 이하의 변화 대비수준** (리비아, 앙골라): 이 국가들은 '자원의 저주' 현상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평균 이상 변화 대비수준과 높은 소득수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제르바이잔): 이 국가들은 어느 정도 '자원의 저주' 현상을 극복하였으며,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공화국, 노르웨이와 같은 국가는 천연자원 지대에 많이 의존하고 있지만, 동시에 강력한 정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원의 저주를 극복하기 위해 자원을 통한 수익을 잘 관리하고 높은 변화 대비수준을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것은 높은 소득 수준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자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도 정부 역량이 부족한 국가는 충격이나 변화에 더욱 취약해 높은 소득 수준으로 이어지기가 어렵다. 물론, 리비아와 같은 일부 중상위 소득 국가도 낮은 변화대응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 국가의 낮은 변화대응수준은 대체로 최근의 분쟁(더불어 다른 내부 취약점도 포함)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앙골라는 갈등과 부패가 끊임없는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이 제도적 변화와 탄탄한 거버넌스의 구축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자원의 저주'에서 벗어나기

원자재가 풍부하지만 변화대응역량 수준 또한 높은 국가의 사례를 통해 천연자원이 주는 혜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자원이 풍부한 국가가 변화대응수준을 개선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 변화대응수준 개선을 통해, 이러한 국가들은 사회·경제적 기반을 강화시키고 산업 및 상업적 기반을 다각화할 수 있다.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CRI가 큰 폭으로 상승한 대표적인 국가는 알제리이다. 알제리는 국가 수입의 1/4 이상이 천연자원 지대이지만, 2013년 90개 국가 중 81위였던 CRI가 2015년 62위로 상승하였다.

만약 중하위 소득 국가가 새로운 천연자원을 발견했다면, 정부와 개발 협력기구는 변화대응능력지수와 이와 관련된 적절한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간다와 모잠비크는 자원을 활용하는 시작점에 위치한 개발도상국이다. 자원 개발을, 분쟁이나 부적절한 거버넌스가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이용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로 삼아야 한다.

높은 소득 평등의 국가가 변화에 더 잘 대응하고 있는가?

주요 시사점

- 포괄적 성장은 높은 변화 대응수준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 물론 예외적인 국가도 존재하지만, 높은 불평등도는 낮은 변화대응 수준과 연관된다.

토마스 피케티(Thomas Piketty)의 21세기 자본론(*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⁶에 따르면, 부의 재분배나 누진세로는 불평등도가 심화되는 현상을 막을 수 없다. 중국이나 인도⁷와 같이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국가들은 선진국과의 소득 격차를 줄여 나가면서 절대적 빈곤률은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전히 불평등도는 많은 국가들에서 심화되고 있고, 선진국(점점 더 부유해지고 있는 국가)과 후진국(점점 더 빈곤해지고 있는 국가) 사이의 불평등도도 점차 더 심해지고 있다.

표 3: 포괄적 성장 상위 국가

국가	포괄적 성장 점수	전체 CRI 순위
노르웨이	0.907	4
덴마크	0.893	8
일본	0.874	15
스웨덴	0.854	9
스위스	0.837	2
핀란드	0.835	10
네덜란드	0.807	11
홍콩	0.802	3
독일	0.792	12

Source: KPMG International, 2015.

⁶ *Capital in the Twenty First Century*, Thomas Piketty, 2013.

⁷ *Inequality in Focus*, World Bank, 2012년 4월.

⁸ *Working for the Few*, Oxfam, 2014.

⁹ 하위 항목은 지니계수, 상위 20% 소득 비율, 국가 빈곤선에 있는 저소득층 비율, 소득 불평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불균등 경제 성장 및 포괄적 성장 정도에 관한 설문조사로 이루어져 있다.

옥스팜(Oxfam)에 따르면, 전세계 상위 85명의 부자 재산 총합이 전세계 인구 중 하위 50%(35억)의 인구 재산 총합과 같다고 한다. 2016년에는, 전세계 상위 1% 재산이 나머지 99% 재산과 같아질 전망이다.⁸

소득 평등도와 변화대응 수준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CRI는 세부 항목인 '포괄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통해 변화대응 수준에 있어 평등도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포괄적 성장'은 여러 지표를 포함하는데, 불평등도를 측정하거나 혹은 불평등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표로 구성된다.⁹ 포괄적 사회는 자율적이고 화합된 시민과 기관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변화에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 전반적 불안에 대한 리스크가 낮다. 만약 낮은 불평등도가 포괄적 성장을 촉진시키고 포괄적 성장이 변화대응수준을 높인다면, 변화대응능력지수를 설계하고 정의할 때 높은 수준의 불평등도가 변화대응수준 상승에 저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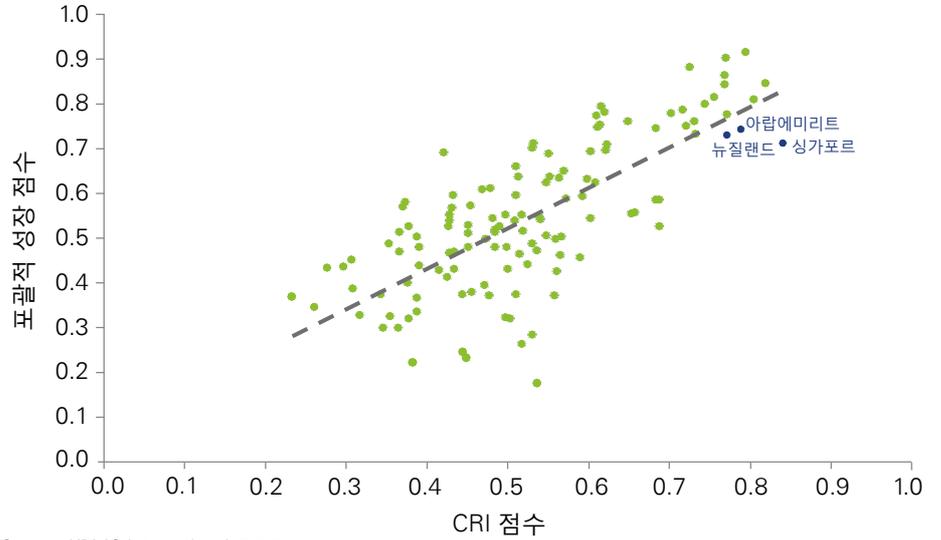
포괄적 성장을 소득평균도의 하위 지표로 사용한 결과, 불평등과 같은 하위 항목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국가는 전체 CRI 점수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포괄적 성장에서 높은 점수를 차지한 국가들은 모두 전체 CRI 지표 상위 15개국에 포함되었다(표 3).



포괄적 성장은 변화대응수준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다.

높은 변화대응수준을 갖춘 국가 중 극히 소수만이 포괄적 성장과 평등도 점수에서 낮은 점수를 얻었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아랍에미리트공화국의 경우, 모두 CRI 상위 10개 국가 안에 들지만, 포괄적 성장 순위는 20위권 밖이다(그림 2).

그림 2: 변화대응수준과 포괄적 성장은 강하게 연관되어 있다.



Source: KPMG International, 2015.



아이티, 마다가스카르, 파푸아뉴기니, 앙골라 등 높은 불평등도를 가진 국가들이 낮은 변화대응수준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표 4). 하지만,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르완다 같이 상대적으로 정치적 안정을 보이는 국가들은 전체적인 CRI 순위에서는 높지만 포괄적 성장 점수는 낮게 나타났다. (르완다 같은 경우, 낮은 소득 수준과 높은 불평등도를 나타내고 있지만 변화 대응 수준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이다.)

불평등도가 왜 문제가 되는가?

과도한 불평등도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불평등도가 높은 국가에서 경제 성장을 했을 때 감소하는 빈곤율은 불평등도가 낮은 국가가 경제 성장을 했을 때 감소하는 빈곤율보다 적다.¹⁰ 특히 서로 다른 인종 간의 과도한 불평등도는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국가의 운영 문제에도 영향을 미친다.¹¹

표 4: 포괄적 성장 하위 국가

국가	포괄적 성장 점수	전체 CRI 순위
나미비아	0.175	53
아이티	0.221	108
과테말라	0.231	89
온두라스	0.243	91
남아프리카공화국	0.260	61
보츠와나	0.283	58
마다가스카르	0.296	119
파푸아뉴기니	0.298	116
르완다	0.317	69
앙골라	0.318	109

Source: KPMG International, 2015.

평등도는 변화대응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불평등도가 낮은 국가는 높은 포괄적 성장을 하고 높은 변화대응수준을 보인다. 이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변화대응수준이 높은 국가가 국가의 평등도를 촉진시키며 나아가 포괄적 성장을 이끈다고도 볼 수도 있다. CRI 순위가 상위에 위치한 국가는 대부분 고소득 국가이며, 이들 국가는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소득을 재분배하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다. 또한 모든 계층의 시민들이 보건 및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저소득층 국가이지만 상대적으로 CRI 점수가 높은 국가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욱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극심한 불평등에 시달리며 낮은 변화대응수준을 보이는 국가들이 저소득층에게 부를 재분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포괄적 성장을 도모한다면, 이들 국가 모두 사회 전체를 위한 변화대응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¹⁰ *Inequality and Poverty Re-examined*, Chapter 2, Ravallion, editors: Jenkins and Micklewright, Oxford, 2007.

¹¹ *Does income inequality cause health and social problems?* Karen Rowlingson, Joseph Rowntree Foundation, September 2011.



외부 전문가의 의견

소규모 국가는 더 높은 변화대응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Max Everest-Phillips
유엔개발계획(UNDP) 산하
글로벌 공공 서비스 우수성 센터
(Global Centre for Public Service
Excellence) 소장

Max Everest-Phillips 소장은 본 보고서에서 2015년 CRI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제시한다. UNDP의 글로벌 공공서비스 우수성센터가 2013년 아시아의 CRI 조사를 실시하면서 필립스 소장은 상위 10개국 중 대부분이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2015년의 경우, 상위 10개 모든 국가의 인구가 적었다. 필립스 소장은 이번 보고서에서 인구규모와 변화대응역량 간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태평양 섬나라인 투발루는 세계 2위로 적은 인구나 4위로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발루는 명확한 국가 가치관을 보유한 국가이다. 투발루 헌법에 따르면 “국민간 갈등과 분열 보다는 투발루의 전통적 절차에 따르는 합의, 의견 일치를 위한 노력”¹² 등이 더 중요한 가치관으로 작용한다. 과연 적은 인구는 그 국가의 변화대응역량을 강화시키는가 아니면 악화시키는가?

이번 CRI 순위에 따르면 국가 인구규모는 변화대응역량과 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조사된 대부분의 국가가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10개국 중에서 천 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국가는 없다. 세계 206개국의 평균 인구 규모는 700만 명이지만, 본 CRI에서 조사된 국가의 ¼ 이상이 평균 인구, 즉 700만 명 이하의 인구를 보유한다.

만약 CRI 조사 대상국 범위에 인구가 적은 국가들을 더 포함했다면, 적은 인구나 높은 소득을 가진 국가 중 적어도 8개국은 현재 상위 20개국만큼의 변화대응역량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¹³

더불어, 인구가 적은 국가의 소득수준 대비 더 높은 변화대응역량이라는 결과가 나올 확률도 높다. World Bank의 세계 거버넌스 지표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에 따르면, 앤티가바바다, 바베이도스, 사모아는 상대적으로 낮은 1인당 소득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안정성 대비 미국보다 순위가 높게 나타났다.¹⁴

적은 인구를 가진 나라는 인구가 많은 나라보다 평균적으로 약 40% 더 높은 소득수준을 가지고 있다.¹⁵ 한 연구에 의하면 단순 소득의 대한 정보로는 적은 인구가 가지는 모든 장점을 파악하기 어렵다. 소규모 국가들의 시민은 평균 이상의 1인당 소득 외에 상대적으로 낮은 문맹률, 높은 건강 수준 및 기대 수명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성적 측면에서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자본, 가족 및 공동체 간의 유대감, 다기능성 (multi-functionality)과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성향, 활발한 민주적 참여 정치, 정치적 안정성과 평등한 사회 마련을 위한 다양한 공공부문 등이 있다.¹⁶

주요 시사점

- CRI 순위 상위 10개국 중 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국가는 없다.
- 적은 인구를 가진 나라는 평균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약 40% 더 높은 소득 수준을 나타낸다.
- 하지만 적은 인구 규모는 후원 정치(patronage politics), 국가 역량의 제한과 같은 불리한 점도 제공한다.

¹² The Constitution of Tuvalu, 4.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1978.07.25).

¹³ Liechtenstein, Luxembourg, Monaco, San Marino, Brunei, Iceland, Kuwait and Andorra.

¹⁴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World Bank, 2014.

¹⁵ Small States, Small Problems? Income, Growth and Volatility in Small States, World Development 28: 2013-2027, Easterly, W. and A. Kraay, 2000.

¹⁶ Remote Control: Geography, Governance, and Development: Challenges Facing the Small, Insular and Remote, Baldacchino, G., R. Greenwood and L. Felt. 2009.



하지만 소규모 국가에 대한 정보나 데이터는 제한적이며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World Bank나 IMF의 경우, 통계자료를 조사할 때 몇몇 인구가 적은 국가들을 제외했으며 UN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도 동일한 모습을 보였다.¹⁷ 따라서 이 주제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 규모가 중요하지만...

물론 모든 소규모 국가가 변화에 잘 대비하는 것은 아니다. 적은 인구를 가진 국가 중 정치적 불안정을 겪는 국가들도 있다.

예를 들어, 1991년 솔로몬 제도에 내전이 일어났고 시에라리온에도 1991년부터 2002년까지 내전이 있었다. 감비아(1994년)와 피지(2006년)는 쿠데타를 겪은 바 있으며, 바누아투(1996년)에서도 쿠데타가 실패한 사건이 있었다. CRI에 포함된 최소인구를 가진 10개국의 전체 순위를 살펴보면, 카타르가 7위이며 동티모르가 113위를 차지했다. 즉, 같은 적은 인구 국가더라도 CRI 순위의 차이가 많은 점을 알 수 있다(표 5).

어떤 경우에는 적은 인구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가의 변화대응역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규모: 인구가 적은 국가들이 인구 대비 규모가 크고 비효율적인 정부를 운영하게 되면, 국민에 대한 복지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2. 후원 정치: 소규모 국가의 마을과 같은 성격은 정치의 개인화로 이어지기 쉽다. 결국 정부가 지배하는 소규모 경제는 독점과 부패정치를 초래할 수 있다.

3. 역량의 제한: 소규모 국가들은 제한된 인적 자본과 금융 자원으로 인해 거버넌스 역량이 부족하다. 그 결과 정부 운용 상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¹⁸

표 5: 최소인구 10개국의 CRI 순위

국가	인구(명)	CRI 순위
통가	105,323	71
카보베르테	498,897	51
부탄	753,947	76
피지	881,065	52
동티모르	1,178,252	113
감비아	1,849,285	111
보츠와나	2,021,144	58
마케도니아	2,107,158	49
카타르	2,168,673	7
나미비아	2,303,315	53

Source: KPMG International in collaboration with UNDP, 2015.

“ 모든 소규모 국가가 변화에 잘 대비하는 것은 아니다. 적은 인구를 가진 국가 중 정치적 불안정을 겪는 국가도 있다. ”

¹⁷ E.g. Antigua and Barbuda, Dominica, Grenada, Saint Kitts and Nevis, Saint Lucia,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eychelles, Kiribati, Nauru, Samoa, Tuvalu and Vanuatu.

¹⁸ Maldives Democratic Reform Watch, <http://maldivesreformwatch.tripod.com/d41.html>, (2015.04.10)

표 6: 변화대응역량에 영향을 주는 거버넌스 영역
적은 인구에 따른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거버넌스 영역	민족공동체의식	원활한 조정	사회적/인종 및 언어적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역량 부족
	정부의 정당성	소규모 인원에 따른 낮은 분쟁 잠재성	다양성의 부족, 공통된 규범 순응을 강요하는 문화
	시민 참여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민주주의	권력 불균등 심화
	안전과 질서	용이한 영토 관리와 자발적 질서 준수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험을 조장하는 성향
	리더십	신속하고 즉각적인 국민들의 반응	부족한 견제와 균형
	정치적 책임성	취약한 정당제도, 국민들의 자유 의견 허용	개인위주의 정치, 빈번한 정권교체로 인한 장기적 계획 실행 저해
	효과적인 공권력	개별화 가능	작은 규모에 따른 독립 미디어 및 시민사회의 부재, 국민들의 약한 감시체제
	공공 행정	즉각적인 효과로 인한 높은 동기부여, 다양성 및 유연성	능력 및 사기 저하, 인맥에 따른 선발 및 승진
	공공 서비스	신속한 대응 가능	높은 비용 대비 부족한 자금
	개인의 과도한 영향	장관 및 고위관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공공서비스	빈번한 부정부패 및 후원 정치

Source: KPMG International, 2015.

변화대응역량이 가장 높은 국가의 대부분이 적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지만, 변화 회복력이 낮은 소규모 국가도 많다.

소규모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인구가 많은 국가들보다 정부 운용이 더욱 원활한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균형이라고 보면 된다. 적은 인구는 강한 사회적 응집성을 가질 수 있지만, 오히려 국민들은 정부 결정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 소규모 국가에서는 정치적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사회적 또는 인종 및 언어적 분열, 파벌정치, 부정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

¹⁹ Governance and Small States, Bank of Valletta Review 40: pp. 53-9, Curmi, L. 2009.

결론



Jan Mattsson이 서문에서 언급했듯이 글로벌 경제는 현재 중요한 시점에 도달해 있다. 2015년에 계획된 UN의 SDG와 기후변화 관련 협상은 불균등, 빈곤, 지속가능경제성장과 같은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CRI는 이처럼 국가와 시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려는 주요 관계자들에게 국가들의 상대적 강·약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CRI에서 주목할 것은 전체 순위만이 아니다. CRI의 3가지 분석 영역(기업 역량, 정부 역량, 시민사회 역량)과 세부 영역까지 이해해야, 소득수준, 지리적 조건, 자원 등의 측면에서 유사점을

가진 국가들 간에 심도 있는 비교를 할 수 있다.

이런 비교와 평가를 통해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간 차이점을 이해하고, 그 원인과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본 보고서에 기술한 내용을 넘어서, 127개 조사대상국에 대한 전체 정보(data banks)를 가지고 영역 간 상호 분석을 하면 CRI를 더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기업들은 인구 증가, 기후 변화, 도시화, 자원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투자 유치와 자원 개발을 위한 경쟁을 펼칠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성장과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CRI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물론 순위가 높은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들 간의 공통적인 특성, 자원의 저주 현상, 적은 인구의 영향 등은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하지만 변화대응능력은 상당히 복잡한 개념이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 투자자, 비정부 조직들은 더 명확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CRI를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향후 과제

CRI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KPMG는 고객들이 CRI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지수에 담긴 풍부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조직의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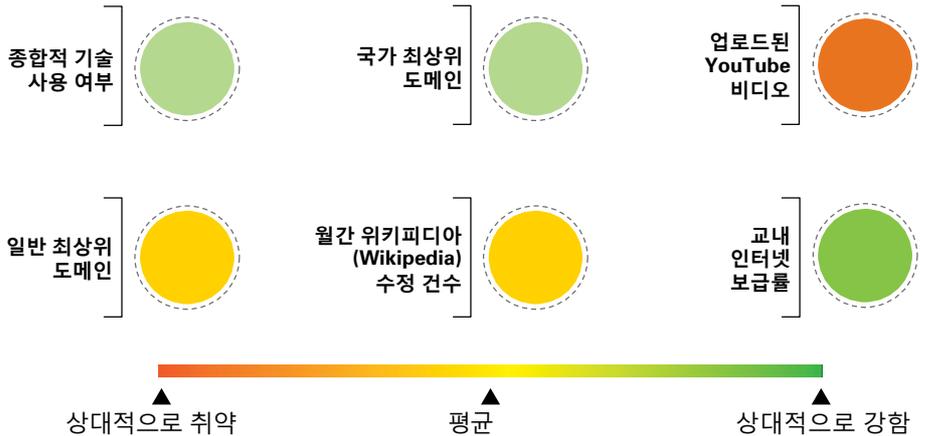
정부 기관의 입장에서는

- 자국이 높은 성과와 낮은 성과를 보이는 분야에 대한 분석과 그 외 높은 성과를 나타낸 국가들의 특성 파악
- 주변 국가들의 자연재해 및 외부 충격에 대한 대비 방안 파악
- 투자자 및 개발기구의 지원 유치과정에서 자국의 강·약점 분석
 - 칠레: 자국의 높은 정부 및 기업 역량 홍보 가능
 - 캄보디아: 자국의 개방형 기업 환경 강조 가능
 - 인도: 자국 경제의 다양성 홍보 가능

민간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 CRI를 활용해 투자 대상 국가들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 실행
 - 현재 정부 역량에서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필리핀의 경우, 사업이 성장하기 위해 자국의 인재와 인프라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 평가 필요
 - 케냐의 시민사회 역량을 세부적으로 조사하여, 기술 수용 여부가 사업 전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
- 이미 투자 중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우려되거나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 평가

그림 3: 심층 분석 - 케냐 기술 사용의 하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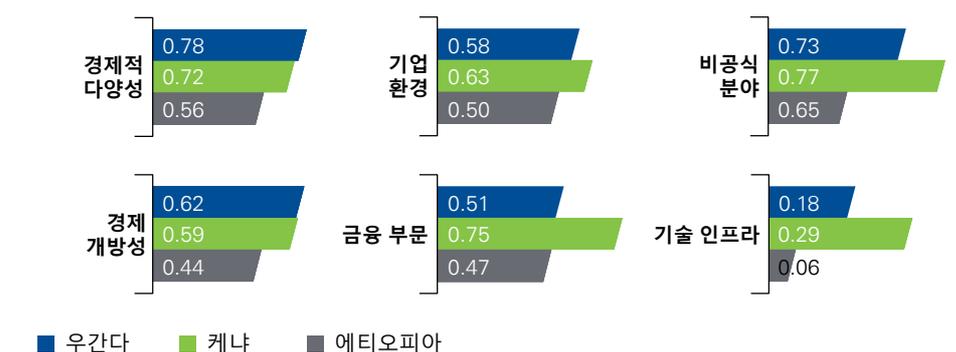
Source: KPMG International, 2015.

개발기구 및 NGO의 입장에서는

- 지원 대상 국가들에 대해 CRI를 활용한 세부 평가 실행
 - 핵심 분야에서 낮은 성과를 나타낸 국가 심사
 - CRI의 Tool kit를 활용하여 최종후보 선정 및 해당 국가의 개발원조 지원금 산정

- 인프라, 기술, 정부 지원 및 안전 측면에서 해당 국가의 사업 가능 여부 평가
- 지역별 비교 분석을 통해 국가별 CRI 강점 분야 강화 방안과 약점 분야 보완 방안 구축 (그림 4)

그림 4: 지역별 비교 기업 역량 분야의 하위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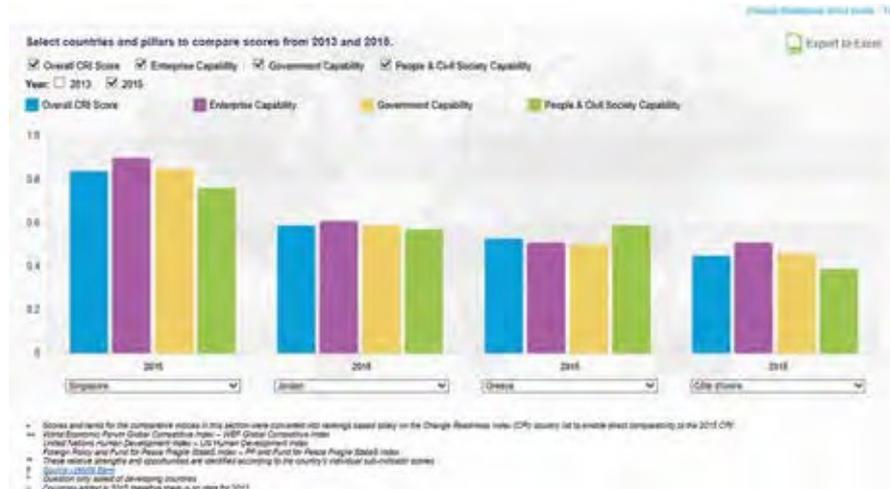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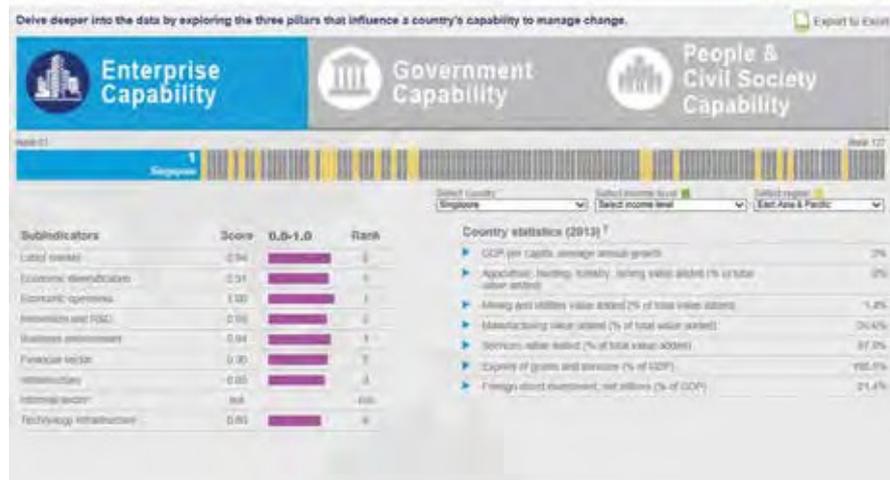


Source: KPMG International, 2015.

CRI의 Tool kit

kpmg.com/changereadiness에서는

- 다양한 국가, 지역, 소득층 간 상호 비교 가능
- CRI 관련 점수들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파악 가능
- CRI에 조사된 127개국에 대한 상세한 정보 확인 가능
-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CRI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음



Appendix 1

변화대응능력지수 산출

CRI는 국가별로 다음과 같이 3가지 분야에서 변화대응역량을 측정한다.

- 1. 기업 역량:**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변화를 관리하고 역동적인 경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능력
- 2. 정부 역량:** 정부와 공공 기관이 변화를 관리하거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

3. 시민사회 역량: 시민과 지역사회의 변화 및 기회에 대응하는 능력

각 분야의 세부 지수는 1차 설문조사 결과와 2차 데이터와 기반으로 산출되었다.

1차 설문 및 2차 데이터 및 출처에 대한 세부 사항은 kpmg.com/changereadiness-methodology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야 1 기업 역량

기업 역량 분야의 최종 점수는 다음과 같은 세부 점수의 합계로 산출된다.

- 1. 노동 시장:** 기업은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통해 새로운 기회를 열고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채용과 해고 관행,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 노동 조합, 성과기반의 보상 등의 부문에 영향을 미친다.
- 2. 경제 다각화:** 다양한 경제 기반을 가진 국가들은 폭넓은 수입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변화하는 글로벌 수요에 더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경제 다각화는 새로운 산업과 기술을 창출할 수 있다.

3. 경제 개방성: 개방 경제는 수입과 수출의 비중이 높으며 무역 장벽과 수출 비용이 낮고 외국인 투자 법인 비율이 높은 편이다. 개방 경제에서 볼 수 있는 기업간 경쟁은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혁신과 신사업을 창출한다.

4. 혁신, 연구 및 개발(R&D): 혁신은 국가 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과 산업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주요 지표로는 인구 1인당 연구원수, GDP 대비 R&D 지출 비중, R&D 관련 산학협력 등이 있다.

6. 기업 환경: 기업 환경이 탄탄하면 신사업을 위한 투자 활성화와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도 강화된다. 주요 지표로는 창업의 용이성, 정부 규제, 재산 및 계약법, 조세, 투자자 보호, 독점 금지 정책 등이 있다.

7. 금융 부문: 견고한 금융 인프라는 기업과 기업인들이 효율적으로 현금 흐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제공한다. 주요 지표로는 금융 서비스 및 벤처 금액 규모, GDP 대비 국내 은행 대출 규모 등이 있다.

7. **교통 및 유틸리티 인프라:** 인프라는 국내외 무역을 활성화하고 생산비를 감소시키며 자연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주요 부문으로는 도로, 항공 교통, 철도, 항구, 전력, 광대역 통신망 등이 있다.
8. **비공식 분야(informal sector):** 해당 분야는 선진국에만 적용되며 해당 국가의 비공식 분야가 공식 분야와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합되는지를 측정한다. 공식 분야의 기업들은 비공식 분야에 비해 금융, 기술, 글로벌 시장 접근성이 더 좋기 때문에 더 높은 변화대응능력지수를 가지고 있다.
9. **기술 인프라:** 기술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업은 혁신을 촉진하고 생산활동을 증가하며 효율성 개선과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분야 2 정부 역량

정부 역량 분야의 최종 점수는 다음 항목의 대한 점수 합계로 산정된다.

- 거시경제 프레임워크:** 강력한 거시경제 운영은 해당국의 경제 환경을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도록 기여한다. 나아가 환율의 변동성과 인플레이션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높은 거시경제 성과를 보인 국가들은 더 나은 신용 등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민간 금융 및 개발 지원금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다.
- 공공 행정과 정부-기업 간의 관계:** 효과적인 관료 체제는 기업친화적 정책으로 산업을 지원하며 정치적 간섭과 부정부패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변화에 더욱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 규제:** 합리적인 규제 정책은 규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보장하며, 정부, 기업, 시민 간의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며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 재정 및 예산:** 재정 및 예산 관리는 정부 지출을 효과적인 방향으로 활성화하고 거시경제적 환경을 안정화한다. 따라서 재정과 예산 관리는 국가가 세계 경제의 침체나 물가 하락, 자연 재해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 지표로는 수지 균형과 부채 비율 등이 있다.
- 법:** 투자자들은 기업과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강력한 법률 제도와 체계를 가진 국가를 선호한다. 주요 지표로 범죄나 테러에 따른 기업의 비용이 있다.
- 정부 계획과 미래 이슈 분석:** 이는 정부가 변화를 통한 기회나 위험을 얼마나 잘 인지하고 대응하는지를 반영한다.
- 환경 및 지속가능성:** 환경 위험과 기회 요소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정부의 역량은 기업과 시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 식량과 에너지 안보:** 명확한 정책 없이 국가가 충격에 대비하거나 변화를 관리하기 어려울 것이다.
- 토지권:** 토지 접근성과 재산권은 기업과 기업가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세대 간의 안정적인 재산권 이전을 지원하고 해외 투자자의 투자 대상 지역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보안:** 국가는 범죄와 테러로부터 시민을 보호함으로써 경제 성장과 인재를 기반으로 국내외 투자 유치에 더 나은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



분야 3 시민사회 역량

시민사회 역량 분야의 최종 점수는 다음과 같은 세부 점수의 합계로 산출된다.

1. **인적 자본:** 기술력이 높은 고급 인력은 자국의 변화대응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다. 주요 지표로는 성인의 식자율, 대학 진학률, 교육 기관의 수준, 근로자 교육 등이 있다.
2. **기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 및 역량, 인센티브 정책 등의 지원 체계는 국가의 변화 및 기회 대비 역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시민사회:** 사회적 결속력을 구축하는 시민사회는 국가의 위기와 변화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주요 지표로 정치적 안정성과 표현의 자유가 있다.
4. **사회 안전망:** 정부의 사회 안전망과 공적 개발 원조, 외국인 노동자의 송금 지원은 국가 간 화합과 경제 성장을 돕고 변화대응역량을 강화한다.
5. **기술 활용:** 소셜 미디어와 같은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의 수용 능력은 타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가져올 수 있다. 주요 지표로는 교내 인터넷 보급률과 웹사이트 개수 등이 있다.
6. **양성 평등:** 여성인구의 학력이 낮고 노동참여도가 낮은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저조한 성장률을 보인다. 양성 평등 수준은 해당 국가의 법과 관세로 파악할 수 있다.
7. **포괄적 성장:** 불균등은 성장 속도를 늦추며 해당 국가의 변화대응 역량을 약화한다. 항목의 주요 지표로는 국민의 소득 분배를 보여주는 지니계수와 불균형한 경제 성장을 보여주는 '취약 국가 지수 (Fragile State Index)'가 있다.
8. **인구 통계:** 대규모의 고학력 생산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의 경우, 새롭게 등장한 산업을 도입하고 신생기업과 오래된 기업을 지원할 부를 창출할 수 있다.
9. **정보 접근성:** 정보통신 역량은 이슈에 대한 인식과 자연 재해 및 경제적 충격 대응 속도를 제고한다. 주요 지표로 언론의 자유와 인터넷 및 전화기 사용량이 있다.
10. **보건:** 시민의 건강 증진은 정부가 교육에 투자할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저축을 유도하고, 생산력 높은 노동인력을 배출한다. 대표적인 지표로는 기대 수명 및 유아 사망률이 있다.

Appendix **2**

연구 방법론

국가 선별

CRI를 도출하기 위해 127개 대상국가를 4가지 소득수준으로 분류하여 조사를 실행하였다. 대상국들에 대한 1차 및 2차 자료 여부에 따라 조사 대상국을 선별하고 몇몇 저소득 국가를 2015년 CRI에 추가할 수 있었다.²⁰

산출 방법론

2015년 CRI는 3가지 분야(기업 역량, 정부 역량, 시민사회 역량)로 구조화되며 각 분야의 세부 지수는 1차 설문 조사 결과와 2차 데이터의 변수들을 바탕으로 산출되었다.

종합 변화대응능력지수는 표준화된 분야별 점수에 가중치를 적용해서 산출되었다. 분야별 점수 또한 표준화된 세부 지수를 기반으로 가중치를 적용한 점수이다. 세부 지수 점수는 표준화된 1차 설문 조사 결과와 2차 데이터 지표에서 나왔으며 각 변수에 대한 가중치는 동일하다.

추가적으로 Oxford Economics의 연구원들은 2차 조사를 위해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1,270명의 전문가(각 국가당 10명)를 대상으로 22가지 질문으로 설문 조사를 실행했다.

2차 자료 출처

2015년 CRI에는 120여 개의 2차 자료가 활용됐으며 아래 표는 선별된 2차 자료 출처의 일부를 보여준다.

표 7: 선별 2차 자료 출처

Economist Intelligence Unit
Legatum Institut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Oxford Economics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World Bank
World Economic Forum

1차 설문 및 2차 데이터 및 출처에 대한 세부 사항은 kpmg.com/changereadiness-methodology 에서 확인할 수 있다.

²⁰ 2차 데이터의 일부는 격차가 있어서 추정만 됨

Appendix 3

추가 순위표

2015년 & 2013년 변화대비역량지수

2015년 CRI 순위	국가	2015년 종합 CRI 점수		2013년 종합 CRI 점수		2015년 기업역량 지수		2013년 기업역량 지수		2015년 정부역량 지수		2013년 정부역량 지수		2015년 시민사회 역량 지수		2013년 시민사회 역량 지수	
1	싱가포르	0.838	▲	0.823	0.904	▲	0.894	0.854	▲	0.842	0.757	▲	0.735				
2	스위스*	0.818	-	-	0.843	-	-	0.805	-	-	0.806	-	-				
3	홍콩*	0.804	-	-	0.860	-	-	0.792	-	-	0.760	-	-				
4	노르웨이*	0.794	-	-	0.723	-	-	0.834	-	-	0.825	-	-				
5	아랍에미리트*	0.787	-	-	0.818	-	-	0.837	-	-	0.706	-	-				
6	뉴질랜드	0.771	▲	0.736	0.765	▲	0.691	0.778	▲	0.753	0.769	▲	0.764				
7	카타르	0.771	▲	0.742	0.794	▲	0.753	0.834	▲	0.795	0.685	▲	0.679				
8	덴마크*	0.769	-	-	0.767	-	-	0.748	-	-	0.793	-	-				
9	스웨덴	0.768	▼	0.783	0.740	▲	0.713	0.769	▼	0.838	0.795	▼	0.798				
10	핀란드*	0.768	-	-	0.755	-	-	0.779	-	-	0.769	-	-				
11	네덜란드*	0.755	-	-	0.740	-	-	0.739	-	-	0.788	-	-				
12	독일	0.744	▲	0.728	0.747	▲	0.691	0.749	▼	0.768	0.736	▲	0.724				
13	영국	0.732	▲	0.690	0.762	▲	0.685	0.687	▲	0.650	0.748	▲	0.736				
14	캐나다*	0.730	-	-	0.703	-	-	0.722	-	-	0.765	-	-				
15	일본	0.725	▲	0.704	0.759	▲	0.724	0.710	▲	0.703	0.706	▲	0.687				
16	호주	0.720	▲	0.702	0.673	▲	0.651	0.720	▲	0.703	0.768	▲	0.750				
17	오스트리아*	0.716	-	-	0.702	-	-	0.725	-	-	0.720	-	-				
18	벨기에*	0.702	-	-	0.704	-	-	0.671	-	-	0.731	-	-				
19	칠레	0.688	▲	0.682	0.689	▲	0.651	0.723	▼	0.757	0.651	▲	0.637				
20	미국	0.687	▲	0.674	0.729	▲	0.681	0.610	▼	0.619	0.723	▲	0.723				
21	이스라엘	0.682	▼	0.705	0.728	▼	0.733	0.602	▼	0.665	0.717	▲	0.716				
22	사우디아라비아	0.682	▼	0.702	0.707	▼	0.710	0.741	▼	0.783	0.599	▼	0.614				
23	대만	0.657	▼	0.668	0.694	▲	0.664	0.642	▼	0.651	0.635	▼	0.691				
24	말레이시아	0.653	▲	0.587	0.743	▲	0.653	0.612	▲	0.545	0.605	▲	0.562				
25	한국	0.649	▼	0.658	0.661	▲	0.636	0.610	▼	0.658	0.676	▼	0.681				
26	프랑스	0.623	▲	0.619	0.623	▲	0.576	0.565	▼	0.620	0.680	▲	0.659				
27	포르투갈	0.621	▲	0.579	0.640	▲	0.567	0.573	▲	0.534	0.650	▲	0.635				
28	체코*	0.620	-	-	0.649	-	-	0.599	-	-	0.612	-	-				
29	헝가리*	0.615	-	-	0.639	-	-	0.585	-	-	0.621	-	-				
30	슬로바키아*	0.614	-	-	0.616	-	-	0.603	-	-	0.624	-	-				
31	카자흐스탄	0.611	▲	0.589	0.592	▲	0.557	0.642	▲	0.630	0.600	▲	0.580				
32	폴란드	0.609	▲	0.585	0.594	▲	0.549	0.613	▲	0.573	0.621	▼	0.633				
33	필리핀	0.609	▲	0.597	0.627	▲	0.577	0.613	▼	0.638	0.585	▲	0.575				
34	태국	0.603	▼	0.607	0.672	▲	0.661	0.578	▼	0.606	0.560	▲	0.554				
35	스페인	0.603	▲	0.588	0.597	▲	0.559	0.550	▲	0.547	0.662	▲	0.659				
36	리투아니아	0.598	▼	0.605	0.592	▲	0.579	0.567	▼	0.597	0.635	▼	0.639				

* 2015 CRI에 새로 추가된 국가

2015년 CRI 순위	국가	2015년 종합 CRI 점수		2013년 종합 CRI 점수		2015년 기업역량 지수		2013년 기업역량 지수		2015년 정부역량 지수		2013년 정부역량 지수		2015년 시민사회 역량 지수		2013년 시민사회 역량 지수	
37	요르단	0.593	▲	0.565	0.612	▲	0.563	0.594	▲	0.570	0.572	▲	0.561				
38	코스타리카	0.590	▲	0.532	0.540	▲	0.453	0.605	▲	0.541	0.627	▲	0.603				
39	터키	0.573	▲	0.544	0.624	▲	0.609	0.562	▲	0.534	0.533	▲	0.487				
40	우루과이	0.570	▼	0.588	0.521	▲	0.497	0.574	▼	0.630	0.615	▼	0.636				
41	페루	0.567	▲	0.557	0.605	▲	0.569	0.553	▼	0.574	0.542	▲	0.527				
42	멕시코	0.565	▼	0.567	0.554	▲	0.536	0.580	▼	0.609	0.560	▲	0.556				
43	인도네시아	0.564	▲	0.523	0.602	▲	0.568	0.538	▲	0.491	0.550	▲	0.510				
44	파나마	0.561	▼	0.589	0.602	▼	0.604	0.516	▼	0.588	0.567	▼	0.575				
45	중국	0.560	▼	0.569	0.600	▼	0.624	0.561	▼	0.574	0.519	▲	0.509				
46	콜롬비아	0.559	▼	0.573	0.586	▲	0.535	0.546	▼	0.637	0.544	▼	0.548				
47	볼가리아*	0.552	-	-	0.601	-	-	0.526	-	-	0.530	-	-				
48	세르비아*	0.551	-	-	0.550	-	-	0.543	-	-	0.559	-	-				
49	마케도니아	0.549	▲	0.513	0.567	▲	0.507	0.548	▲	0.497	0.530	▼	0.536				
50	캄보디아	0.548	▼	0.580	0.612	▼	0.625	0.548	▼	0.619	0.485	▼	0.495				
51	카보베르데*	0.541	-	-	0.531	-	-	0.569	-	-	0.523	-	-				
52	피지*	0.540	-	-	0.599	-	-	0.510	-	-	0.511	-	-				
53	나미비아	0.536	▼	0.542	0.576	▲	0.528	0.567	▼	0.605	0.467	▼	0.494				
54	엘살바도르*	0.536	-	-	0.574	-	-	0.500	-	-	0.535	-	-				
55	그리스	0.533	▲	0.495	0.510	▲	0.418	0.502	▲	0.477	0.587	▼	0.590				
56	모로코	0.532	▲	0.518	0.593	▲	0.574	0.535	▲	0.534	0.467	▲	0.447				
57	아제르바이잔*	0.531	-	-	0.522	-	-	0.590	-	-	0.481	-	-				
58	보츠와나	0.531	▼	0.538	0.539	▲	0.501	0.584	▼	0.612	0.470	▼	0.500				
59	브라질	0.525	▲	0.511	0.536	▲	0.480	0.532	▼	0.537	0.506	▼	0.516				
60	에콰도르	0.519	▲	0.498	0.528	▲	0.486	0.511	▼	0.512	0.517	▲	0.496				
61	남아프리카공화국	0.518	▲	0.487	0.536	▲	0.516	0.539	▲	0.491	0.478	▲	0.454				
62	스리랑카	0.517	▲	0.487	0.565	▲	0.512	0.509	▲	0.501	0.479	▲	0.447				
63	러시아	0.516	▲	0.445	0.548	▲	0.427	0.475	▲	0.420	0.523	▲	0.489				
64	튀니지	0.514	▼	0.519	0.511	▲	0.510	0.502	▼	0.528	0.528	▲	0.518				
65	케냐	0.511	▼	0.529	0.589	▼	0.609	0.444	▼	0.485	0.500	▲	0.493				
66	이탈리아	0.511	▲	0.479	0.507	▲	0.413	0.440	▲	0.436	0.586	▲	0.587				
67	인도	0.510	▲	0.442	0.568	▲	0.500	0.508	▲	0.441	0.455	▲	0.384				
68	가나	0.509	▼	0.531	0.513	▼	0.522	0.522	▼	0.566	0.493	▼	0.504				
69	르완다	0.504	▲	0.467	0.487	▲	0.467	0.586	▲	0.538	0.440	▲	0.396				
70	도미니카공화국	0.501	▲	0.482	0.536	▲	0.503	0.462	▲	0.444	0.503	▲	0.500				
71	통가*	0.500	-	-	0.480	-	-	0.498	-	-	0.522	-	-				
72	키르기스스탄*	0.499	-	-	0.526	-	-	0.459	-	-	0.511	-	-				
73	잠비아	0.498	▲	0.483	0.498	▼	0.504	0.532	▲	0.514	0.463	▲	0.430				
74	우간다	0.491	▲	0.473	0.516	▼	0.525	0.492	▲	0.455	0.466	▲	0.438				
75	조지아*	0.486	-	-	0.475	-	-	0.512	-	-	0.470	-	-				
76	부탄*	0.485	-	-	0.454	-	-	0.553	-	-	0.447	-	-				
77	몽골	0.485	▲	0.458	0.386	▲	0.361	0.527	▲	0.498	0.541	▲	0.513				
78	탄자니아	0.482	▼	0.510	0.461	▼	0.490	0.515	▼	0.545	0.471	▼	0.494				
79	루마니아	0.480	▲	0.447	0.491	▲	0.420	0.443	▲	0.408	0.506	▼	0.512				
80	모잠비크	0.478	▲	0.463	0.505	▲	0.487	0.509	▲	0.504	0.420	▲	0.398				
81	세네갈	0.473	▲	0.443	0.467	▲	0.440	0.461	▲	0.418	0.492	▲	0.472				
82	자메이카	0.472	▲	0.423	0.513	▲	0.399	0.403	▲	0.351	0.499	▼	0.519				

* 2015 CRI에 새로 추가된 국가

2015년 CRI 순위	국가	2015년 종합 CRI 점수	2013년 종합 CRI 점수	2015년 기업역량 지수	2013년 기업역량 지수	2015년 정부역량 지수	2013년 정부역량 지수	2015년 시민사회 역량 지수	2013년 시민사회 역량 지수
83	이집트	0.469 ▲	0.445	0.510 ▲	0.498	0.434 ▲	0.420	0.463 ▲	0.415
84	파라과이	0.457 ▲	0.419	0.458 ▲	0.409	0.462 ▲	0.405	0.449 ▲	0.442
85	알제리	0.455 ▲	0.386	0.444 ▲	0.337	0.506 ▲	0.427	0.415 ▲	0.392
86	방글라데시	0.453 ▼	0.464	0.487 ▶	0.487	0.438 ▼	0.477	0.434 ▲	0.428
87	코트디부아르	0.452 ▲	0.451	0.510 ▼	0.514	0.456 ▼	0.482	0.391 ▲	0.357
88	아르헨티나	0.452 ▲	0.418	0.424 ▲	0.360	0.399 ▲	0.353	0.531 ▼	0.542
89	과테말라	0.449 ▼	0.458	0.487 ▼	0.493	0.427 ▼	0.428	0.432 ▼	0.451
90	나이지리아	0.446 ▲	0.439	0.514 ▲	0.477	0.432 ▼	0.464	0.391 ▲	0.375
91	온두라스	0.444 ▲	0.422	0.477 ▲	0.426	0.408 ▲	0.398	0.449 ▲	0.441
92	카메룬	0.435 ▲	0.419	0.448 ▼	0.452	0.476 ▲	0.461	0.383 ▲	0.343
93	베냉*	0.435 -	-	0.468 -	-	0.444 -	-	0.394 -	-
94	파키스탄	0.433 ▲	0.427	0.543 ▲	0.536	0.357 ▼	0.362	0.401 ▲	0.383
95	에티오피아	0.432 ▲	0.398	0.427 ▲	0.414	0.490 ▲	0.460	0.381 ▲	0.319
96	리비아	0.430 -	-	0.444 -	-	0.406 -	-	0.440 -	-
97	미얀마	0.429 ▼	0.468	0.482 ▼	0.523	0.408 ▼	0.459	0.398 ▼	0.423
98	베트남	0.429 ▲	0.411	0.465 ▲	0.421	0.394 ▲	0.376	0.427 ▼	0.437
99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0.427 ▼	0.458	0.434 ▼	0.445	0.397 ▼	0.426	0.451 ▼	0.504
100	니카라과	0.426 ▲	0.422	0.434 ▲	0.424	0.415 ▼	0.417	0.431 ▲	0.426
101	우크라이나	0.422 ▼	0.433	0.442 ▼	0.454	0.345 ▼	0.346	0.480 ▼	0.497
102	시에라리온	0.416 ▲	0.410	0.458 ▼	0.473	0.419 ▲	0.405	0.371 ▲	0.353
103	네팔	0.393 ▲	0.373	0.353 ▲	0.281	0.374 ▼	0.399	0.451 ▲	0.441
104	남수단	0.393 ▲	0.352	0.386 ▼	0.415	0.404 ▲	0.286	0.388 ▲	0.356
105	짐바브웨	0.389 ▲	0.358	0.372 ▲	0.365	0.421 ▲	0.360	0.376 ▲	0.349
106	볼리비아	0.389 ▲	0.366	0.347 ▲	0.320	0.400 ▲	0.362	0.421 ▲	0.416
107	말리	0.389 ▲	0.370	0.397 ▲	0.375	0.378 ▼	0.386	0.392 ▲	0.348
108	아이티	0.383 ▲	0.359	0.407 ▲	0.388	0.398 ▲	0.349	0.344 ▲	0.340
109	앙골라*	0.379 -	-	0.365 -	-	0.434 -	-	0.338 -	-
110	베네수엘라	0.379 ▲	0.340	0.315 ▲	0.237	0.342 ▲	0.303	0.479 ▼	0.481
111	감비아*	0.377 -	-	0.354 -	-	0.419 -	-	0.358 -	-
112	예멘	0.375 ▼	0.407	0.392 ▼	0.395	0.394 ▼	0.500	0.339 ▲	0.327
113	동티모르	0.372 ▼	0.414	0.331 ▼	0.374	0.354 ▼	0.448	0.431 ▲	0.420
114	수단*	0.368 -	-	0.418 -	-	0.335 -	-	0.352 -	-
115	라오스*	0.368 -	-	0.380 -	-	0.367 -	-	0.355 -	-
116	파푸아뉴기니*	0.366 -	-	0.403 -	-	0.330 -	-	0.365 -	-
117	콩고 민주 공화국	0.356 ▲	0.325	0.376 ▲	0.347	0.371 ▲	0.323	0.321 ▲	0.306
118	시리아	0.355 ▼	0.462	0.390 ▼	0.509	0.341 ▼	0.477	0.334 ▼	0.401
119	마다가스카르*	0.347 -	-	0.366 -	-	0.332 -	-	0.345 -	-
120	부르키나파소*	0.345 -	-	0.332 -	-	0.370 -	-	0.332 -	-
121	말라위*	0.319 -	-	0.328 -	-	0.306 -	-	0.323 -	-
122	소말리아	0.311 ▼	0.430	0.335 ▼	0.510	0.308 ▼	0.445	0.290 ▼	0.334
123	모리타니*	0.309 -	-	0.301 -	-	0.326 -	-	0.301 -	-
124	아프가니스탄	0.298 ▲	0.280	0.312 ▼	0.341	0.275 ▲	0.231	0.308 ▲	0.269
125	부룬디*	0.279 -	-	0.282 -	-	0.273 -	-	0.282 -	-
126	기니*	0.263 -	-	0.241 -	-	0.264 -	-	0.285 -	-
127	차드*	0.235 -	-	0.202 -	-	0.255 -	-	0.247 -	-

* 2015 CRI에 새로 추가된 국가

2015년 CRI 순위: 고소득 국가 제외

종합 CRI	국가	지역	기업 역량	정부 역량	시민사회 역량
23	대만	아시아·태평양	22	22	26
24	말레이시아	아시아·태평양	12	25	34
29	헝가리*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29	35	30
31	카자흐스탄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46	21	35
33	필리핀	아시아·태평양	30	24	39
34	태국	아시아·태평양	25	38	43
37	요르단	중동 및 북아프리카	35	32	40
38	코스타리카	중남미	58	28	28
39	터키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31	45	50
41	페루	중남미	36	48	47
42	멕시코	중남미	54	37	42
43	인도네시아	아시아·태평양	37	55	45
44	파나마	중남미	38	62	41
45	중국	아시아·태평양	40	46	58
46	콜롬비아	중남미	48	52	46
47	불가리아*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39	60	53
48	세르비아*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55	53	44
49	마케도니아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52	50	52
50	캄보디아	아시아·태평양	34	51	69
51	카보베르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63	41	56
52	피지*	아시아·태평양	41	66	60
53	나미비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49	43	79
54	엘살바도르*	중남미	50	73	49
56	모로코	중동 및 북아프리카	44	56	78
57	아제르바이잔*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66	33	70
58	보츠와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59	36	77
59	브라질	중남미	61	57	63
60	에콰도르	중남미	64	65	59
61	남아프리카공화국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62	54	74
62	스리랑카	남아시아	53	68	73
64	튀니지	중동 및 북아프리카	72	72	54
65	케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47	84	65
67	인도	남아시아	51	69	83
68	가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71	61	67
69	르완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82	34	89
70	도미니카공화국	중남미	60	80	64
71	통가*	아시아·태평양	84	74	57
72	키르기스스탄*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65	82	61
73	잠비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78	58	81
74	우간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68	75	80
75	조지아*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86	64	76
76	부탄*	남아시아	93	47	88
77	몽골	아시아·태평양	108	59	48
78	탄자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90	63	75
79	루마니아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79	86	62
80	모잠비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77	67	97
81	세네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88	81	68

* 2015년 CRI에 새로 추가된 국가

■ 중상위 소득

■ 중하위 소득

■ 저소득

종합 CRI	국가	지역	기업 역량	정부 역량	시민사회 역량
82	자메이카	중남미	70	101	66
83	이집트	중동 및 북아프리카	73	89	82
84	파라과이	중남미	92	79	86
85	알제리	중동 및 북아프리카	96	70	98
86	방글라데시	남아시아	81	88	91
87	코트디부아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74	83	103
88	아르헨티나	중남미	101	103	51
89	과테말라	중남미	80	92	92
90	나이지리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69	91	104
91	온두라스	중남미	85	98	87
92	카메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94	77	106
93	베냉*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87	85	101
94	파키스탄	남아시아	57	113	99
95	에티오피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00	76	107
96	리비아*	중동 및 북아프리카	95	99	90
97	미얀마	아시아·태평양	83	97	100
98	베트남	아시아·태평양	89	107	95
99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98	105	85
100	니카라과	중남미	99	96	94
101	우크라이나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97	115	71
102	시에라리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91	95	109
103	네팔	남아시아	116	109	84
104	남수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09	100	105
105	짐바브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12	93	108
106	볼리비아	중남미	117	102	96
107	말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05	108	102
108	아이티	중남미	103	104	115
109	앙골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14	90	117
110	베네수엘라	중남미	122	116	72
111	감비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15	94	111
112	예멘	중동 및 북아프리카	106	106	116
113	동티모르	아시아·태평양	120	114	93
114	수단*	중동 및 북아프리카	102	118	113
115	라오스*	아시아·태평양	110	112	112
116	파푸아뉴기니*	아시아·태평양	104	120	110
117	콩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11	110	121
118	시리아	중동 및 북아프리카	107	117	118
119	마다가스카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13	119	114
120	부르키나파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19	111	119
121	말라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21	123	120
122	소말리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18	122	124
123	모리타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24	121	123
124	아프가니스탄	남아시아	123	124	122
125	부룬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25	125	126
126	기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26	126	125
127	차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27	127	127

* 2015년 CRI에 새로 추가된 국가

 중상위 소득

 중하위 소득

 저소득

2015년 CRI 순위: 아시아 □태평양

종합 CRI	국가	기업 역량	정부 역량	시민사회 역량
1	싱가포르	1	1	11
3	홍콩*	2	6	10
6	뉴질랜드	7	8	7
15	일본	9	18	18
16	호주	24	17	8
23	대만	22	22	26
24	말레이시아	12	25	34
25	한국	26	26	22
33	필리핀	30	24	39
34	태국	25	38	43
43	인도네시아	37	55	45
45	중국	40	46	58
50	캄보디아	34	51	69
52	피지*	41	66	60
71	통가*	84	74	57
77	몽골	108	59	48
97	미얀마	83	97	100
98	베트남	89	107	95
113	동티모르	120	114	93
115	라오스*	110	112	112
116	파푸아뉴기니*	104	120	110

* 2015년 CRI에 새로 추가된 국가



2015년 CRI 순위: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종합 CRI	국가	기업 역량	정부 역량	시민사회 역량
28	체코*	27	31	33
29	헝가리*	29	35	30
30	슬로바키아*	33	29	29
31	카자흐스탄	46	21	35
32	폴란드	43	23	31
39	터키	31	45	50
47	불가리아*	39	60	53
48	세르비아*	55	53	44
49	마케도니아	52	50	52
57	아제르바이잔*	66	33	70
63	러시아	56	78	55
72	키르기스스탄*	65	82	61
75	조지아*	86	64	76
79	루마니아	79	86	62
99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98	105	85
101	우크라이나	97	115	71

* 2015년 CRI에 새로 추가된 국가



2015년 CRI 순위: 중남미

종합 CRI	국가	기업 역량	정부 역량	시민사회 역량
19	칠레	23	15	24
38	코스타리카	58	28	28
40	우루과이	67	39	32
41	페루	36	48	47
42	멕시코	54	37	42
44	파나마	38	62	41
46	콜롬비아	48	52	46
54	엘살바도르*	50	73	49
59	브라질	61	57	63
60	에콰도르	64	65	59
70	도미니카공화국	60	80	64
82	자메이카	70	101	66
84	파라과이	92	79	86
88	아르헨티나	101	103	51
89	과테말라	80	92	92
91	온두라스	85	98	87
100	니카라과	99	96	94
106	볼리비아	117	102	96
108	아이티	103	104	115
110	베네수엘라	122	116	72

* 2015년 CRI에 새로 추가된 국가

■ 고소득

■ 중상위 소득

■ 중하위 소득

■ 저소득

2015년 CRI 순위: 중동 및 북아프리카

종합 CRI	국가	기업 역량	정부 역량	시민사회 역량
5	아랍에미리트*	4	2	19
7	카타르	5	4	20
21	이스라엘	16	30	17
22	사우디아라비아	18	12	36
37	요르단	35	32	40
56	모로코	44	56	78
64	튀니지	72	72	54
83	이집트	73	89	82
85	알제리	96	70	98
96	리비아*	95	99	90
112	예멘	106	106	116
114	수단*	102	118	113
118	시리아	107	117	118

* 2015년 CRI에 새로 추가된 국가

■ 고소득

■ 중상위 소득

■ 중하위 소득

2015년 CRI 순위: 북아메리카

종합 CRI	국가	기업 역량	정부 역량	시민사회 역량
14	캐나다*	20	16	9
20	미국	15	27	15

* 2015년 CRI에 새로 추가된 국가

 고소득

2015년 CRI 순위: 북부, 남부, 서부 유럽

종합 CRI	국가	기업 역량	정부 역량	시민사회 역량
2	스위스*	3	5	2
4	노르웨이*	17	3	1
8	덴마크*	6	11	4
9	스웨덴	13	9	3
10	핀란드*	10	7	6
11	네덜란드*	14	13	5
12	독일	11	10	13
13	영국	8	19	12
17	오스트리아*	21	14	16
18	벨기에*	19	20	14
26	프랑스	32	44	21
27	포르투갈	28	40	25
35	스페인	42	49	23
36	리투아니아	45	42	27
55	그리스	75	71	37
66	이탈리아	76	87	38

* 2015년 CRI에 새로 추가된 국가

 고소득

2015년 CRI 순위: 남아시아

종합 CRI	국가	기업 역량	정부 역량	시민사회 역량
62	스리랑카	53	68	73
67	인도	51	69	83
76	부탄*	93	47	88
86	방글라데시	81	88	91
94	파키스탄	57	113	99
103	네팔	116	109	84
124	아프가니스탄	123	124	122

* 2015년 CRI에 새로 추가된 국가

 중하위 소득

 저소득

2015년 CRI 순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종합 CRI	국가	기업 역량	정부 역량	시민사회 역량
51	카보베르테*	63	41	56
53	나미비아	49	43	79
58	보츠와나	59	36	77
61	남아프리카공화국	62	54	74
65	케냐	47	84	65
68	가나	71	61	67
69	르완다	82	34	89
73	잠비아	78	58	81
74	우간다	68	75	80
78	탄자니아	90	63	75
80	모잠비크	77	67	97
81	세네갈	88	81	68
87	Côte d'Ivoire	74	83	103
90	나이지리아	69	91	104
92	카메룬	94	77	106
93	베냉*	87	85	101
95	에티오피아	100	76	107
102	시에라리온	91	95	109
104	남수단	109	100	105
105	짐바브웨	112	93	108
107	말리	105	108	102
109	앙골라*	114	90	117
111	감비아*	115	94	111
117	콩고	111	110	121
119	마다가스카르*	113	119	114
120	부르키나파소*	119	111	119
121	말라위*	121	123	120
122	소말리아	118	122	124
123	모리타니*	124	121	123
125	부룬디*	125	125	126
126	기니*	126	126	125
127	차드*	127	127	127

* 2015년 CRI에 새로 추가된 국가

 중상위 소득

 중하위 소득

 저소득

2015년 CRI 순위: 고소득 국가

종합 CRI	국가	지역	기업 역량	정부 역량	시민사회 역량
1	싱가포르	아시아·태평양	1	1	11
2	스위스*	북부, 남부, 서부 유럽	3	5	2
3	홍콩*	아시아·태평양	2	6	10
4	노르웨이*	북부, 남부, 서부 유럽	17	3	1
5	아랍에미리트*	중동 및 북아프리카	4	2	19
6	뉴질랜드	아시아·태평양	7	8	7
7	카타르	중동 및 북아프리카	5	4	20
8	덴마크*	북부, 남부, 서부 유럽	6	11	4
9	스웨덴	북부, 남부, 서부 유럽	13	9	3
10	핀란드*	북부, 남부, 서부 유럽	10	7	6
11	네덜란드*	북부, 남부, 서부 유럽	14	13	5
12	독일	북부, 남부, 서부 유럽	11	10	13
13	영국	북부, 남부, 서부 유럽	8	19	12
14	캐나다*	북아메리카	20	16	9
15	일본	아시아·태평양	9	18	18
16	호주	아시아·태평양	24	17	8
17	오스트리아*	북부, 남부, 서부 유럽	21	14	16
18	벨기에*	북부, 남부, 서부 유럽	19	20	14
19	칠레	중남미	23	15	24
20	미국	북아메리카	15	27	15
21	이스라엘	중동 및 북아프리카	16	30	17
22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및 북아프리카	18	12	36
25	한국	아시아·태평양	26	26	22
26	프랑스	북부, 남부, 서부 유럽	32	44	21
27	포르투갈	북부, 남부, 서부 유럽	28	40	25
28	체코*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27	31	33
30	슬로바키아*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33	29	29
32	폴란드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43	23	31
35	스페인	북부, 남부, 서부 유럽	42	49	23
36	리투아니아	북부, 남부, 서부 유럽	45	42	27
40	우루과이	중남미	67	39	32
55	그리스	북부, 남부, 서부 유럽	75	71	37
63	러시아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56	78	55
66	이탈리아	북부, 남부, 서부 유럽	76	87	38

* 2015년 CRI에 새로 추가된 국가

 고소득

2015년 CRI 순위: 중상위 소득 국가

종합 CRI	국가	지역	기업 역량	정부 역량	시민사회 역량
23	대만	아시아·태평양	22	22	26
24	말레이시아	아시아·태평양	12	25	34
29	헝가리*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29	35	30
31	카자흐스탄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46	21	35
34	태국	아시아·태평양	25	38	43
37	요르단	중동 및 북아프리카	35	32	40
38	코스타리카	중남미	58	28	28
39	터키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31	45	50
41	페루	중남미	36	48	47
42	멕시코	중남미	54	37	42
44	파나마	중남미	38	62	41
45	중국	아시아·태평양	40	46	58
46	콜롬비아	중남미	48	52	46
47	불가리아*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39	60	53
48	세르비아*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55	53	44
49	마케도니아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52	50	52
52	피지*	아시아·태평양	41	66	60
53	나미비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49	43	79
57	아제르바이잔*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66	33	70
58	보츠와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59	36	77
59	브라질	중남미	61	57	63
60	에콰도르	중남미	64	65	59
61	남아프리카공화국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62	54	74
64	튀니지	중동 및 북아프리카	72	72	54
70	도미니카공화국	중남미	60	80	64
71	통가*	아시아·태평양	84	74	57
79	루마니아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79	86	62
82	자메이카	중남미	70	101	66
85	알제리	중동 및 북아프리카	96	70	98
88	아르헨티나	중남미	101	103	51
96	리비아*	중동 및 북아프리카	95	99	90
99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98	105	85
109	앙골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14	90	117
110	베네수엘라	중남미	122	116	72

* 2015년 CRI에 새로 추가된 국가

■ 중상위 소득

2015년 CRI 순위: 중하위 소득 국가

종합 CRI	국가	지역	기업 역량	정부 역량	시민사회 역량
33	필리핀	아시아·태평양	30	24	39
43	인도네시아	아시아·태평양	37	55	45
51	카보베르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63	41	56
54	엘살바도르*	중남미	50	73	49
56	모로코	중동 및 북아프리카	44	56	78
62	스리랑카	남아시아	53	68	73
67	인도	남아시아	51	69	83
68	가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71	61	67
72	키르기스스탄*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65	82	61
73	잠비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78	58	81
75	조지아*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86	64	76
76	부탄*	남아시아	93	47	88
77	몽골	아시아·태평양	108	59	48
81	세네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88	81	68
83	이집트	중동 및 북아프리카	73	89	82
84	파라과이	중남미	92	79	86
87	Côte d'Ivoire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74	83	103
89	과테말라	중남미	80	92	92
90	나이지리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69	91	104
91	온두라스	중남미	85	98	87
92	카메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94	77	106
94	파키스탄	남아시아	57	113	99
98	베트남	아시아·태평양	89	107	95
100	니카라과	중남미	99	96	94
101	우크라이나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97	115	71
104	남수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09	100	105
106	볼리비아	중남미	117	102	96
112	예멘	중동 및 북아프리카	106	106	116
113	동티모르	아시아·태평양	120	114	93
114	수단*	중동 및 북아프리카	102	118	113
115	라오스*	아시아·태평양	110	112	112
116	파푸아뉴기니*	아시아·태평양	104	120	110
118	시리아	중동 및 북아프리카	107	117	118
123	모리타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24	121	123

* 2015년 CRI에 새로 추가된 국가

 중하위 소득

2015년 CRI 순위: 저소득 국가

CRI 순위	국가	지역	기업 역량	정부 역량	시민사회 역량
50	캄보디아	아시아·태평양	34	51	69
65	케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47	84	65
69	르완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82	34	89
74	우간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68	75	80
78	탄자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90	63	75
80	모잠비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77	67	97
86	방글라데시	남아시아	81	88	91
93	베냉*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87	85	101
95	에티오피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00	76	107
97	미얀마	아시아·태평양	83	97	100
102	시에라리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91	95	109
103	네팔	남아시아	116	109	84
105	짐바브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12	93	108
107	말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05	108	102
108	아이티	중남미	103	104	115
111	감비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15	94	111
117	콩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11	110	121
119	마다가스카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13	119	114
120	부르키나파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19	111	119
121	말라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21	123	120
122	소말리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18	122	124
124	아프가니스탄	남아시아	123	124	122
125	부룬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25	125	126
126	기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26	126	125
127	차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27	127	127

* 2015년 CRI에 새로 추가된 국가

 저소득

KPMG 소개

KPMG International은 전세계 146개국의 회원들과 파트너십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객들의 리스크를 감소하고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감사, 세금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PMG의 국제개발원조서비스(International Development Assistance Services, IDAS) 전문가들은 개발도상국들의 최전선에서 신흥국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의 이익을 위한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낸다.

KPMG의 전문가들은 정부, 비정부 기구, 여러 부문의 민간 기업과 협업한 경험을 통해 다양한 지역과 국가에서 기회를 개발하고 리스크를 줄이고 있다. 주요 지역별 기업의 진출 또는 출구 전략을 수립하며 정부 기관의 경우 변화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자 소개



Timothy A. A. Stiles는 KPMG IDAS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20년 이상 비영리법인 관련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복지 사업, 교육, 헬스케어 및 정부 관련 지역, 국가 및 다국적기구와 재단과 협업한 경험이 있다. Stiles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UN의 글로벌 파트너 직무를 맡았으며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다보스포럼에서 KPMG를 대표하여 발표를 해 왔다.



Trevor Davies는 KPMG의 IDAS 글로벌 우수성 센터의 센터장이다. 주요 경력으로는 가이아나, 그레나다, 자메이카, 아프리카공화국 등의 국가원수 및 장관에게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여러 최빈개발도상국에서 빈곤 완화, 경제 발전, 공공재정관리, 민-관 파트너십, 공공 부문 개선 관련 프로젝트를 주도했다. Davies는 KPMG와 UN 간의 협업과 영국의 구호 기관인 국제개발부서와의 협업에서 글로벌 파트너의 직무를 맡았다.



Adrian Cooper는 Oxford Economics의 CEO로서, 글로벌 경제 분석, 전망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주요 경력으로 유럽, 미국,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의 정부 부처에게 정책적 제언과 산업 및 투자의 경제적 영향 분석을 제공한 바 있다. Cooper는 또한 영국 재무부와 같이 주요 정부의 거시경제 전망을 편성하고 국가예산을 위한 세금 및 경제 정책을 마련했다.

Contact KPMG's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istance Services

Global Chair

Timothy A. A. Stiles

T: +1 212 872 5955

E: taastiles@kpmg.com

IDAS Center of Excellence

Trevor Davies

T: +1 202 533 3109

E: tdavies2@kpmg.com

Central America

Alfredo Artiles

T: +505 2274 4265

E: aartiles@kpmg.com

CIS

Andrew Coxshall

T: +995322950716

E: acoxshall@kpmg.com

East Asia and Pacific Islands

Mark Jerome

T: +856 219 00344

E: mjerome@kpmg.com

Eastern Europe

Aleksandar Bucic

T: +381112050652

E: abucic@kpmg.com

European Union Desk

Mercedes Sanchez-Varela

T: +32 270 84349

E: msanchezvarela@kpmg.com

Francophone Africa

Thierry Colatrella

T: +33 1 55686099

E: tcolatrella@kpmg.fr

Middle East

Suhael Ahmed

T: +97165742214

E: suhaelahmed1@kpmg.com

North America & United

Nations Desk

Mark Fitzgerald

T: +1 703 286 6577

E: markfitzgerald@kpmg.com

Northern Europe

Carina Hedberg-Kivisto

T: +27 116477111

E: carina.hedberg-kivisto@kpmg.co.za

South America

João Silverio

T: +551139401562

E: jsilverio@kpmg.com.br

Sub-Saharan Africa

Charles Appleton

T: +254 20 2806000

E: charlesappleton@kpmg.co.ke

삼성KPMG 경제연구원

T: 02.2112.0771

F: 02.2112.7441

www.kpmg.com/kr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15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Member firms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KPMG International provides no client services. No member firm has any authority to obligate or bind KPMG International or any other member firm vis-à-vis third parties, nor does KPMG International have any such authority to obligate or bind any member firm.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logo and "cutting through complexity"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

Designed by Evalueserve.

Publication name: 2015 Change Readiness Index

Publication number: 132377-G

Publication date: June 2015